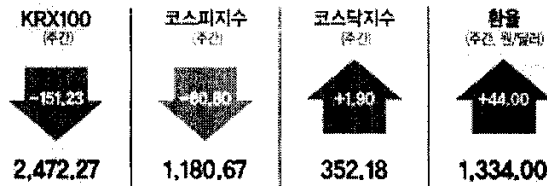


NEWS SUMMARY

2008.10.20

자산운용협회 홍보실



유가증권시장 주간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억원, 증권거래소 제공, 10.13~17일)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사모펀드	증권저축	연기금	자산운용	기관계	외국인	개인	기타
매도	2,150	9,526	4,958	5,955	350	7,172	35,996	66,106	91,432	136,868	7,600
매수	1,540	8,854	5,274	6,517	529	8,581	38,681	71,185	72,000	151,280	7,488
순매수	▽600	329	316	551	179	1,409	2,895	5,079	▽19,431	14,392	▽112

주간 외국인 기관 매매동향

(가환)

순매수		순매도	
종목	금액	종목	금액
삼성전자	1,506	현대차	1,256
KB금융	1,351	기아차	864
하이닉스	1,125	기업은행	682
신한지주	909	현대화	575
SK에너지	904	LG전자	427
하나금융지주	759	현대건설	278
한국전력	599	현대모비스	260
삼성화재	447	대림산업	233
삼성물산	395	SK텔레콤	204
KT&G	250	현대제철	192
두산중공업	240	동양재활화학	190
대한항공	233	GS건설	175
CJ제일제당	229	S K	175
롯데쇼핑	218	현대중공업	174
한국가스공사	189	동국제강	160

(외국인)

(단위: 억원, 기간: 10.13~17일)

순매수		순매도	
종목	금액	종목	금액
현대차	459	POSCO	2,888
기아차	430	삼성전자	2,481
SK텔레콤	407	KB금융	2,030
현대모비스	393	현대중공업	1,238
삼성증권	282	하이닉스	1,133
대우증권	195	대우조선해양	1,129
미래에셋증권	187	SK에너지	1,018
기업은행	166	신한지주	971
S K	156	하나금융지주	804
LG디스플레이	154	삼성화재	767
K T	154	두산인프라코어	639
효성	151	삼성중공업	629
LG텔레콤	150	대림산업	539
삼성SDI	124	한국전력	522
L G	122	두산중공업	478

코스닥시장 주간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억원, 기간: 10.13~17일)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사모펀드	증권저축	연기금	자산운용	기관계	외국인	개인	기타
매도	70	186	138	86	23	253	717	1,443	3,069	39,086	646
매수	108	230	248	50	31	246	973	1,886	2,369	39,372	609
순매수	38	74	109	▽36	8	▽6	257	444	▽700	288	▽37

달러·원화 확 풀어 신용경색 막는다

정부 금융안정대책...5000만원 예금보장 한도 확대는 유보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은행이 들여 오는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가 총 1000억달러까지 3년간 지급보증을 해줄기로 했다.

국내 은행 가운데 외국에서 빌린 외화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곳이나 오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와 한국은행은 300억달러의 외화자금을 국내 은행에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으며,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매입을 통해 원화 유동성도 늘려주기로 했다.

중시안정을 위해서는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식형·회사채형 펀드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일부터 해외지점을 포함한 국내 은행이 내년 6월 30일까지 도입하는 신규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 방안’ 주요 내용

은행 대외채무 1,000억달러 지급보증 *정부, 내년 6월 말까지 도입분, 3년간 *10월 중 국회 통과 추진	은행 대외신인도 개선 *외화조달 용이
외화유동성 300억달러 추가 공급 *수출입은행 200억달러, 한은 100억달러	은행권 외화자금난 해소 *무역금융 여력 확대
충분한 원화 유동성 지원 *RP 매입, 국채 직매입, 통화증권 중도상환 등	은행권 대출 여력 확대 *금리 상승 억제
3년 이상 장기주식형 펀드 가입시 세제혜택 *회사채형 펀드도 도입, 세제혜택 부여	투자심리 개선 *중시·채권 시장에 10조원 유입
기업은행에 1조원 현물 출자 *약 12조원의 중소기업 대출 여력 증가	중기대출 여력 12조원 증가 *한계중소기업 도산 저지

*금융회사 자본확충, 예금보장 확대도 필요시 검토, 자료·기획재정부 등

차환용 대외 외환 차입에 대해 발생 일로부터 3년간 지급 보증하기로 했다. 총보증 규모는 1000억달러이며, 지급보증 동의안이 국회를 거쳐 발효될 때까지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정부 대신 지급보증을 해주게 된다.

정부는 이번주 국회에 지급보증 동의안을 제출하고, 가급적 이달 중 동의안 처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정부와 한은은 또 300억달러 외화 유동성을 은행권에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권의 '돈 가뭄' 현상에 대

해서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국채 직매입, 통화안정증권의 중도상환 등을 통해 원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에 1조원 규모 현물을 출자해 12조원가량 추가대출여력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시 안정과 관련해서는 적립식 장기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안에서 불입금액을 1~3년차별로 각각 20%, 10%, 5% 소득공제하고 3년간 배당소득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원 한도, 3년 이상 거치식 투자를 대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농특세를 포함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A2·3·4·5·11면

이진우·한예경 기자

한국 뱅크런 염려없어 자금공급에 초점

주요국가 금융대책과 비교해보니

다급해진 美·유럽은 은행 국유화까지 단행 내달초 선진-신흥국 정상회의 내용에 관심

【워싱턴 윤경호 특파원·서울 박유연 기자】이번에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다른 국가에서 이미 발표한 방안들을 참고로 했다. 이에 각국들이 발표한 기존 대책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국제적으로 공조가 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유형별 대응

구분	내용
은행 간 채무보증 (유로존 15개국 은행 간 거래 지급보증 합의)	영국: 2,500억파운드
	독일: 4,000억유로
	프랑스: 3,200억유로
	스페인: 1,000억유로
	네덜란드: 2,000억유로
예금자금 보장 (EU 27개국 합 2만유로→ 5만유로로 상향)	포르투갈: 200억유로
	호주: 금융사의 처분에 대한 지급보증
	미국: 한도 10만달러→25만달러
	영국: 한도 3만5000파운드→5만파운드
	독일: 무제한 예금자금 보장
	아이슬란드: 무제한 예금자금 보장
	아일랜드: 국내은행 2년간 예금
	헝가리: 무제한 예금자금 보장
	포르투갈, 덴마크, 그리스: 예금자금 보장
	호주: 향후 3년간 예금자금 보장
은행 국유화 (유로존 15개국 국유화 합의)	뉴질랜드: 향후 2년간 예금자금 보장
	홍콩: 홍콩달러 예금 및 외화예금 보장
	싱가포르: 싱가포르달러와 외화예금 보장
	미국: 부실 금융사: 자본 매입(구제금융안)
	영국: HBOS, RBS 등에 474억유로 지원
통화스왑	독일: 은행 자본 확충에 800억유로
	프랑스: 은행 자본 확충에 400억유로
금리 인하	FRB, ECB, SNB, BOJ, BOE 등 통화스왑 체결
	미국, EU, 영국,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중국, 한국, 대만, 홍콩, 바레인

뤄지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기존 대책들이 품고 있는 문제점까지 그대로 답습하게 됐다는 점에서 향후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

◆유동성 추가공급 대책이 핵심

'10·19대책'처럼 미국, 유로존 등에서 나온 시장 안정대책에서 핵심은 유동성 공급이었다. 미국은 재무부와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통해 총 1조640억달러의 유동성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유로존의 유동성 공급 계획은 미국보다도 많다. 전체 합산 규모가 1조3000억유로를 넘어선다. 국가별로 영국은 3개 은행에 370억파운드(약 7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시아에서도 일본이 지방 소형은행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자금 투입 확대 조치를 내놓은 것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는 400억달러 규모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러시 이루는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는 유동성 공급을 보조하기 위해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 FRB와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한 7개 중앙은행이 정책공조를 통해 동시에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여기에는 영란은행, 캐나다중앙은행, 스위스중앙은행, 스웨덴중앙은행, 중국중앙은행이 동참해 0.25~0.5%포인트를 인하했다. 또 한국 호주 홍콩 대만도 금리 인하 대열에 접어들었다.

◆국제공조 통한 외환시장 안정 대책

외환시장 안정 대책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홍콩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합동 연례총회 폐회식에 참석한 모습. 그는 이날 실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시경제 정책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FP통신】

사용 가능한 외환보유액을 모두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각국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 외환시장 안정은 선진 시장에도 발등의 불이다. 달러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를 돕기 위해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스위스중앙은행, 일본은행 등과 공조해 세계 금융시장에 달러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적인 달러 가뭄이 계속되면 위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간거래·예금 보호 대책 줄이어

각종 보증 대책도 줄을 잇고 있다. 미국은 연방예금보험공사를 동원해 무보증 채권 등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대해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유로존은 15개국 정상들이 회의를 개최해 은행간 대출을 서로 보증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는 아직 유로에 가입하지 않은 영국도 참여해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또 모든 은행 예금에 대해 지급보증 약속도 이뤄졌다. 이

밖에 27개국이 모여 예금보장한도를 2만유로에서 5만유로로 올렸으며 나라별로 부실 은행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에는 아시아 각국도 동참하고 있다. 일본은 재무상이 필요한 경우 모든 은행 예금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고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마카오 등도 비슷한 대책을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 주요국 정상회의 제안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주요 선진국·신흥국 정상회의도 다음달 중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회동한 뒤 공동 성명을 통해 국제 정상회의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반기론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글로벌 금융위기를 논의할 주요국 정상회의를 12월 초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자고 말했다.

연봉 4000만원 김 과장, 월 50만원 3년 불입 땀 36만원 절세

오늘부터 내년 말까지 새로 적립식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소득 공제를 받는다. 이미 펀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은 기존 펀드의 계약을 갱신하면, 그 이후에 납입하는 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앞으로 3년간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 소득 공제율은 가입 후 1년간 부은 돈의 20%, 2년차 납입액의 10%, 3년차 납입액의 5%다. 연봉

세제 혜택 한도는

연간 1200만원 소득 공제
3년 내 해지 땀 물어내야

이 월 4000만원인 사람이 매달 50만원씩 펀드 투자를 하면 3년간 총 36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셈이다. 연봉이 8000만원인 사람이 월 100만원씩 부으면 3년간 113만5000원이 경감된다. 세제 지원 방안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주식 투자를 하는 모든 펀드가 세제 혜택을 받나.

"아니다.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를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혜택을 받는다. 해외 펀드나 주식 비율이 60%에 못 미치는 펀드는 대상이 아니다. 한번에 돈을 넣는 거치식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가입한 후 3년이 안 된 상태에서 해지하면 경감받은 세금을 다

문답으로 풀어본 펀드 세제 혜택

펀드 세제 지원

구분	장기주식형 펀드	장기회사채형 펀드
대상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적립식만 해당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 -거치식만 해당
세제 지원 대상 금액 한도	분기별 300만원, 연 1200만원	3000만원
시행 시기	오늘(20일)부터 내년 말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펀드	
투자 기간	3년 이상 투자해야 하며, 중도해지하면 세금 추징	
세제 혜택	-소득공제: 가입 후 1년간 불입액의 20%, 2년차 10%, 3년차 5%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적립식 주식형 펀드 혜택

연봉 4000만원인 김 과장이 월 50만원씩 불입	연봉 8000만원인 이 부장이 월 100만원씩 불입
21만1000원 (불입액 800만원×공제율 20%+소득세율 17.5%)	66만원 (불입액 1200만원×공제율 20%+소득세율 27.5%)
9만9000원 (600만원×10%+18.5%)	31만7000원 (1200만원×10%+28.4%)
5만원 (600만원×5%+18.5%)	15만8000원 (1200만원×5%+28.4%)
36만원	113만5000원

자료: 기획재정부

시 내야 한다."

-이미 펀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넣은 돈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펀드의 계약을 갱신하고, 3년간 더 투자하면 새로 넣은 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미 2년간 적립식 펀드 투자를 한 경우라도 1년만 더 납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년 더 부어야 혜택을 받는 것이다. 손해를 보긴 했지만

길게 보고 펀드 투자를 더 할 요량이면 내년 말까지 계약 갱신을 해야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계약 갱신은 개별적으로 펀드를 구입한 은행이나 증권사를 찾아가 해야 한다."

-납입액 전부가 해당하나.
"아니다.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연간 1200만원만 혜택을 받는다. 장기투자하면 자축의 공제 혜택에 맞춘 것이다. 이 한도는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펀드에 가입하면 분기당 6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여러 펀드에 나눠 투자해도 총액만 한도를 넘지 않으면 모두 소득 공제를 받는다. 3개 펀드에 각각 매달 50만원씩 투자하면 분기별 총액이 450만원이기 때문에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되고 나머지 150만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당

이미 투자한 돈은

기불입액 소급적용 안 돼
기존 펀드도 갱신 땀 혜택

금에 대한 시간과 액수에 관계없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채권형 펀드에 대한 혜택은.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장기회사채형 펀드(거치식)가 대상이다. 소득 공제는 없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시장에서 팔고 있는 채권형 펀드는 대부분 국고채·금융채 위주로 운용하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 펀드가 별로 없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조건에 맞춰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말까지 가입해야 하고, 1인당 납입 한도는 3000만원이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적립식펀드에 月 100만원 투자 연봉 8000만원

봉급자 3년간 세금 113만원 줄어

3년이상 가입 주식형·회사채형 펀드에 세금혜택

최고 年 1200만원 소득공제...내년말까지 한시적

19일 발표된 대책 중 투자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소식은 단원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었다. 정부는 주식형 적립식펀드, 회사채 전용 거치식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각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세 면제 혜택을 20일부터 준다. 국내 주식과 회사채에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주식, 채권시장에 10조원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펀드 세감면 어떻게 이뤄지나

먼저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세 면제 해

택이 주어진다.

1년째는 불입금액의 20%, 2년째는 10%, 3년째는 5%씩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단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립식펀드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분기별로는 최대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이 상한선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가입하는 펀드가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존 적립식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반드시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20일 이후 신규 가입 부분만 혜택이 주어진다. 부부가 따로 가입해도 각기 소득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대책을 통해 새롭게 마련된 '장기 회사채형 펀드'는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다. 금융채와 국고채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을 회사채시장으로 유도키로 하고 이번에 비과세 혜택을 결정했다. 투자자들은 이 펀드에 가입하면 회사채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가입한도는 1인당 총 3000만원 이내다.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이번 세감면의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장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연봉 4000만원의 봉급생활자가 한 달 50만원씩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3년간 총소득세 감면 규모는 36만원이다.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가정하지 않은 것이다.

봉급생활자가 50만원을 은행에 예금할 경우를 비교해 보자.

은행 이자는 3년 모두 146만원(이자율 5.8% 가정). 따라서 적립식펀드 투자자는 소득세 감면을 빼고 투자를 통해 연간 4%가량의 수익률만 올리면 은행예금을 앞지르는 성과를 내게 된다. 참고로 코스피는 지난 1

펀드 세감면 혜택 주요 내용

구 분	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형펀드
적용대상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 CP(기업어음)에 투자
가입자격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개인	
가입한도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총 3,000만원 이내
투자기간	3년 이상(적립식)	3년 이상(거치식)
세제혜택	• 불입액의 일정비율 소득공제 - 1년차 20% - 2년차 10% - 3년차 5%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가입시한	대책발표시점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료=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적립식펀드 세감면 혜택 얼마?(단위=만원)

	한 달 투자금액	1년차	2년차	3년차	총규모
K과장 (연봉 4,000만원)	50(연 600)	21.1	9.9	5.0	36.0
	100(연 1,200)	42.2	19.8	9.9	71.9
L부장 (연봉 8,000만원)	50(연 600)	33.0	15.8	7.9	56.7
	100(연 1,200)	66.0	31.7	15.8	113.5

*주문에 포함, 비과세혜택은 감안하지 않음. 내년 1월 1일 펀드 가입을 전제로 계산. 올해 세제개편안(소득세 2%P인하) 통과 감안. 자료=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0년간 연평균 14.49%, 5년간 6.94%의 수익률을 올렸다.

또 같은 사람이 한 달에 100만원을 3년간 투자했다면 감세 규모는 71만9000원으로 된다. 연봉 8000만원의 사람이 한 달에 100만원을 3년간 투자할 경우 감세혜택은 113만5000원에 달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감세 효과는 소득의 현재 7~35% 수준인 배당소득세 비과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감세 부분의 재투자 효과를 감안하면 실제 혜택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종합소득세 감세 효과가 2009~2013년 총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펀드러' 막을 수 있을까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국내 펀드자금 환매가 잦아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998년 바이코리아 실패 이후

2008년 적립식펀드마저 실패한다면 한국의 장기 투자 문화는 다시 뿌리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모 자산운용사 사장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절대금액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재투자를 감안한다면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기를 수 있는 기대이익은 생각보다 크다"고 말했다.

적립식펀드는 기본적으로 3~5년 이상 장기투자를 목표로 삼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하락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소득공제 혜택까지 재투자한다면 이익은 커진다는 것이다.

황금단 삼성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이 많은 손실을 본 상태라 소득공제 혜택은 불안심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국내 주식형펀드 적립식 계좌는 920만개로 규모는 47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기업들의 자금조달 경색문제 해결을 위해 발표된 '회사채 전용 펀드'는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모 자산운용사 하이일드채권 매니저는 "아무리 배당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해도 원금 손실 가능성을 무릅쓰고 투자에 나설 개인고객이 많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미 우리나라에 비슷한 취지로 회사채에 3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고수익 고위험' 펀드(하이일드 펀드)가 작년 3월부터 출시됐지만 설정액은 최근 줄어들고 있다. 대표적인 하이일드 펀드인 '우리CS고수익 고위험채권' 펀드는 한때 설정액이 5000억원을 넘었지만 10월 17일 현재 270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김태근·신현규 기자



“장기투자 유도...증시안정 기대”

■ 시장 전문가 반응

정부가 19일 펀드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펀드의 자금 이탈을 막아 증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소득공제 혜택이 크지 않아 펀드로 추가 자금이 유입되기엔 한계가 있으며 세제 혜택이 있는 국내 주식형 및 채권형펀드로 갈아타기 위해 해외펀드에서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재룡 동양증권증권 자산관리컨설팅연구소장은 “적립식펀드 가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 연간 수십만원의 절세효과가 생기고 채권형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로 연간 1% 안팎의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봉환 자산운용원회 부회장은 “정부가 업계의 건의를 대폭 수용했다”며 “펀드권에 대한 우려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배당소득 비과세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병훈 대우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주식형펀드에서 배당이익은 1~2%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15.4%의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금액으로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분석이 있다. 진미경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센터장은 “2001년 증시부양책에서 장기증권저축 가입자에게 세액공제를 해줬던 것에 비하면 이번 소득공제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국내 펀드에 한정된 만큼 앞으로 해외 펀드에서 자금 이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진 센터장은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국내 펀드로 전환되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당수의 해외 펀드들이 정리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환 기자 tsk@hankyung.com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갱신때만 혜택 여러 계좌 합쳐 분기별 300만원 한도

■ 궁금증 Q&A

정부는 3년 이상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대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3년 이상 거치식 회사채형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살펴본다.

Q:세제 혜택 펀드에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

A:20일부터 당장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은 신규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 이후, 기존 가입자는 계약 갱신일 이후 불입분과 발생소득분부터 적용받는다.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 또는 계약 갱신한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일 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년간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Q:적립식 주식형펀드에 이미 가입한 고객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A:이미 가입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계약 갱신은 20일부터 가능하다. 계약을 갱신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불입할 것을 약정하면 계약 갱신일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

A:각각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불입 한도는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경우 분기별 300만원이다.

Q:1인이 다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

A: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여러 계좌 한도를 합쳐 1인당 분기별 300만원의 불입 한도가 적용된다.

Q: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나?

A:근로자, 자영업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도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으면 공제 혜택은 못 받고 배당만 비과세된다.

Q:중도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은?
A:배당소득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이 추정된다.

Q:장기 주식형펀드와 은행예금 수익률을 비교하면?

A:은행 예금으로 매월 100만원씩 3년간 저축하는 경우 이율은 연 5.8%로 가정하면 3년간 저축액은 3600만원, 이자는 322만원이다. 세후 이자는 272만원이다. 장기 주식형펀드는 3년간 불입하면 소득공제만으로 3년간 9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 수익률이 연간 3.2%만 되더라도 은행예금과 동일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Q:적립식 주식형 펀드와 거치식 회사채형 펀드의 배당소득 비과세로 아낄 수 있는 세금은?

A: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소득세 14%와 주민세 1.4% 등 총 15.4%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지금도 비과세하고 있다. 경제총 기자 jn@hankyung.com

장기 적립식 年1,2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정부가 장기 적립식 주식형 펀드가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카드까지 꺼냈다. 그동안 장기 적립식 주식형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시장의 요구가 거셌지만 정부는 세수(稅收)가 1조원 이상 줄어든다는 이유로 꺼낼 듯 말 듯 망설여왔다.

하지만 외국인의 대규모 이탈로 코스피지수가 1,200선도 무너진데다 1,000포인트 붕괴도 눈앞에 닥치면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0조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거치식의 경우 회사채형 펀드로만 국한되는 등 혜택의 범주가 제한되고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워낙 커 얼마나 악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예비 조치로 만들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3년 이상, 1,200만원 적립펀드 가입 때 혜택=주식형 펀드의 경우 적립식 펀드 가입자로 국한했다. 한번에 일정한 금액을 맡기는 거치식은 제외했다. 적립식 펀드는 3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투자자가 대상이고 한도는 1년 기준 1,200만원까지다.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로 펀드를 납입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1년차는 종합소득액에서 불입액의 20%, 2년차는 10%, 3년차는 5%를 각각 공제한다. 한 사람이 여러 펀드에 가입할 경우 펀드별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부가 별도로 펀드에 가입한 경우에도 각각 세제혜택을 받

회사채형은 거치식만 年 3,000만원한도 비과세
가입시한 내년말까지... 중도환매땐 혜택분 환수
기존가입자 계약 갱신하면 3년간 불입액에 혜택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

〈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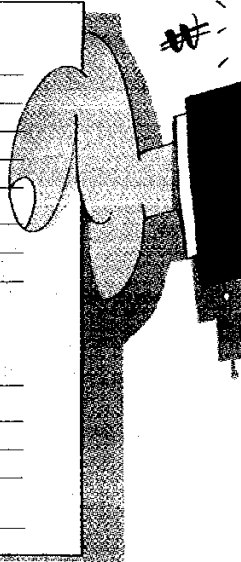
- 가입자격: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 투자기간:3년 이상
- 가입시한:2009년12월31일까지
- 기존 가입자는 계약기간 갱신(남은 기간 포함 3년)할 경우 혜택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펀드)

- 적용대상:펀드자산 60%이상 국내주식투자
- 가입한도:분기별 300만원 이내(연간 1,200만원)
- 세제혜택
 - 소득공제: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포함)
 - ※ 주식형 펀드 중 거치식펀드는 대상 제외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펀드)

- 적용대상:펀드자산 60%이상 국내회사채·CP(국고채, 금융채 등은 제외) 투자펀드
- 가입한도:1인당 총 3,000만원 이내
- 세제혜택: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농특세 비과세 포함)
- ※ 회사채형의 경우 적립식 펀드는 대상 제외



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는 배당소득만 비과세받는다.

거치식은 회사채형 펀드로 제한했다. 3년 이상 회사채형 펀드에 투자하면 총 3,000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 거치식은 자산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펀드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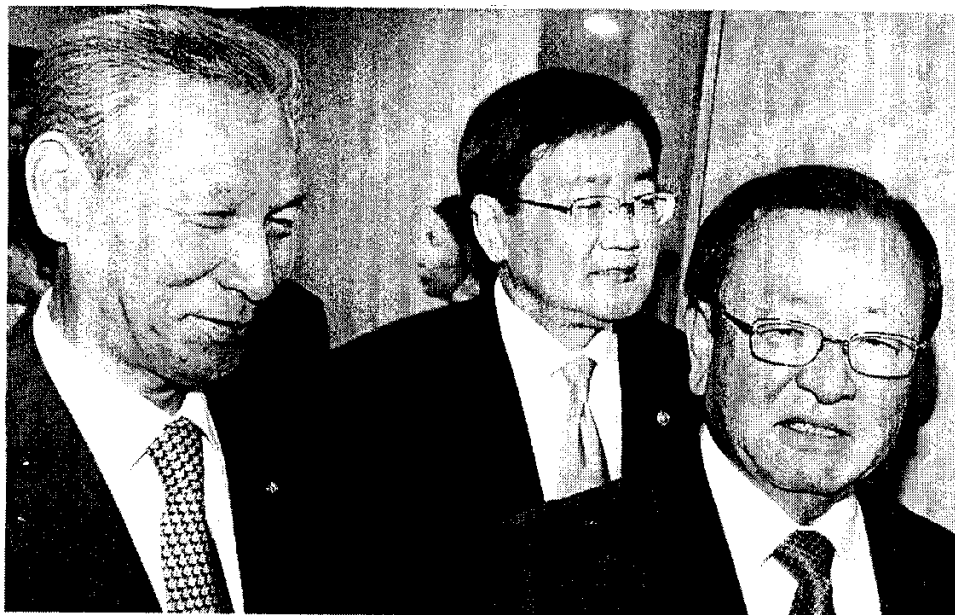
상을 한정한다. 두 종류의 펀드에 가입한 경우 모두 3년간 배당소득(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15.4%)을 비과세받는다. 물론 이 역시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이 대상이고 3년 이상 투자해야 가능하다. 장기 적립식 펀드나 거치식 펀드 모두 세제혜택은 20일부터 붓는 돈과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되며 가입시

한은 내년 말까지다. 펀드를 중도에 환매할 경우 그간 받은 배당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액을 토해내야 한다.

◇기존 가입자도 계약 갱신 때는 혜택=기존 가입자는 계약을 갱신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펀드로 제한할 경우 펀드 갈아타기가 활발해져 시장불안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세제혜택 대상을 넓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감세대상을 신규 투자자로 한정할 경우 기존 투자자들이 펀드를 환매해 재가입하는 과정에서 증시 불안을 키울 수 있어 기존 펀드 투자자들에게도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계약 갱신일 이후 불입분(소득분)부터 계산되고 갱신일 이후 3년간 주어진다. 예컨대 4개월 전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 만기가 8개월 남은 A씨의 경우 증권사 등에 계약갱신을 2년4개월만 추가할 경우 투자기간은 총 3년이 돼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또 주식형 펀드 감세를 위한 펀드 가입 기간을 5년으로 하려다 기간이 너무 길어 투자심리 개선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3년 이상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종합소득세가 오는 2009~2013년 총 1조3,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 적립식 계좌 수는 840만개이고 규모는 42조원에 이르지만 세제혜택을 주식형 적립식 펀드로 국한한 것도 세수감소가 그나마 덜 하다는 점이 감안됐다.



김민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외환금융시장 안정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한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승환 기자>

페널티 없어 도덕적 해이 가능성 시중 돈 늘어 인플레 자극 우려도

10·19대책에 대해서는 비판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긴급 자금조달에 대해 별다른 '페널티(벌칙)'가 없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은행의 '우는 소리'를 들어줌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으로서는 별도 자금노력 없이 금쪽같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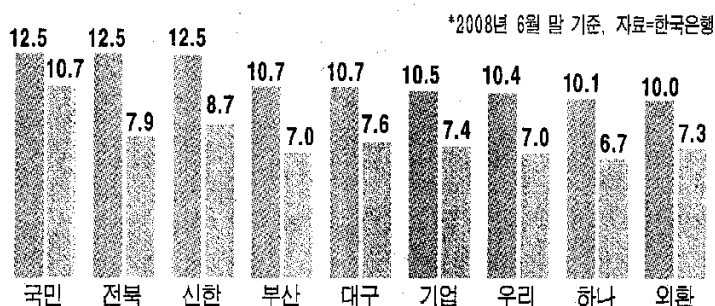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원화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대책발표 직후 "통안증권이나 환매조건부채권 매입 등은 시장에 자금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페널티는 없다"고 말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외화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한은 관계자는 "입찰을 거치면서 사정이 급한 은행이 더 많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페널티 금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 국제 직매입, 통안증권 중도 상환 등을 통해 필요한 원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한은이 앞장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원자재·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박 요소가 누그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율과 통화량 증가가 불러올 인플레이션 변수는 제거하

은행별 BIS 비율 현황(단위=%)



지 못한 상태다.

결국 하반기 들어 대외 변수로 인해 겨우 사그라들던 인플레이션이 4분기 이후 잠재적으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성 예금, 현금통화,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등으로 구성된 광의통화(M2)는 올해 8월 중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7% 증가했다. M2 증가는 지난 5월 15.8%로 9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뒤 6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향후 RP 등 시장형 금융상품 매입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는 불가피하다. 특히 향후 추가 금리 인하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M2 증가세를 막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

이성태 한은 총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국제 금융시장이 빨리 안정

된다면 내년 물가가 추가 상승할 여지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만 밝혀 향후 인플레이션 대처방안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새로운 관치금융 논란도 10·19대책에는 잠재적인 부담이다. 외화와 원화 유동성이 금융당국 청구지도에 의해 사실상 '배급'될 가능성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문제나 물가에 미칠 악영향, 관치금융, 재정 악화 가능성 등은 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라며 "금융시장 안정 필요성이 워낙 중요해졌기 때문에 비판을 무릅쓰고 각국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한시적인 조치들인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우·김태근·한예경 기자

“투자 심리 진정 도움 ... 10조원 자금 유입 기대”

펀드 대책, 증시 영향은

장기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단 불안한 투자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가 단호한 대책을 내놓은 것도 증시의 안정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주가가 하루 10% 이상 급등락한 것은 외환시장 불안에 따른 공포 심리 확산이 컸기 때문이다. 대우증권 홍성국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조치로 금융시장의 문제는 해외 변수로 단일화됐다”며 “내부 불안요인 때문에 커졌던 변동성도 상당히 줄어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렇다고 답장 증시로 돈이 쏟아져 들어와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증시를 망가뜨린 근본 이유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다. 이는 정부 대책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적자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 등 주식 시장 바깥 상황도 별로 좋지 않다. 한국투자증권 김학균 선임 연구원은 “(정부의 대책에도) 당장 주식시장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 혜택을 통해 정부가 기대

“기존 투자자 혜택 빠져 효과 제한적” 분석도

하는 건 두 가지다. 신규 자금 유입과 자금 이탈 방지다. 정부는 약 10조원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이탈 들어 부쩍 늘어난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출도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증권 김휘곤 연구원은 “1100선이 깨지면 정말 펀드런이 일어날 가능성이 컸다”며 “이번 조치가 투자 심리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

석이 지배적이다. 세제 혜택보다 훨씬 큰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쉽사리 펀드에 돈을 집어넣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존 투자자가 이미 투자한 돈에 대한 혜택이 빠진 점도 문제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의 최상길 전무는 “새로 돈을 넣는 금액에 대해서만 해

택이 주어진다”며 “추가로 넣을 돈이 없다면 펀드를 환매하고 다시 가입하게 돼 신규 자금 유입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펀드 가입자는 더 불안해졌다. 이미 해외펀드 셋 중 하나는 일년 새 반토막이 났다. 특히 지난해 4조원 이상이 몰렸던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의 경우 1년 동안 2조원 이상을 까먹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혜택 대상에서도 빠져 수익률 하락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증권 이계용 펀드리서치 팀장은 “단기적으로 악재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투자처도 마땅치 않아 급격히 돈이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실물로 옮겨 붙은 불길을 잡을 수 있느냐가 증시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 의견도 많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포함한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처리 결과가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증권 이선엽 연구원은 “환율이 진정됐던 지난 주말에 주식시장이 요동친 것은 PF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책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이번 주 부동산 시장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최현철·고란 기자

chdck@joongang.co.kr

파이낸셜뉴스

2008년 10월 20일 월요일 030면

‘복잡한 펀드’ 비용산정 쉽게 바꾼다

모자·재간접·종류형 등
금감원, 기준 만들기로

모자펀드, 재간접펀드, 종류형 펀드(멀티클래스 펀드) 등 복잡한 구조의 펀드에 적용하는 총비용비율 산정기준이 이달 중에 마련된다. 또 펀드의 매매수수료 관련 정보는 비용정보와 분리해 투자설명서와 운용보고서에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펀드비용 공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자펀드 등의 총비용(TER) 산정방법과 공시에 문제점이 있었다며 펀드비용 산정 및 공시기준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모자펀드 등 복잡한 구조의 펀드에 적용할 총비용비율 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자펀드, 재간접펀드의 경우 모펀드 등의 기타비용을 자펀드 등에 안분해 총비용비율을 산정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사례를 참조해 모자펀드 등의 비용구조를 반영한 합성 총비용비율 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펀드 순자산가치의 10% 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와 관련된 합성총비용

비율을 산정·공시토록 하고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종류형펀드의 경우 클래스별 총비용비율 산정 때 기타비용을 안분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비용비율 산정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된다. 현재는 총비용비율 산정 때 펀드의 매매중개수수료를 기타비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펀드 설정초기나 대량매매 등 보유자산의 집중매매로 매매수수료가 기타 비용으로 지나치게 총비용에 반영되는 등 투자자

들의 오해를 양산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매매수수료 관련 정보의 경우 비용정보와 분리하되 투자설명서와 운용보고서에 별도로 기재토록 하고, 자산운용협회를 통한 비교공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자산운용협회 비교공시 사이트 화면을 정비해 펀드투자자가 펀드 비용정보를 쉽게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s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요즘 부자들은 | 안갯속 증시 펀드환매 할까 말까

펀드 분할환매 → ELD-단기 정기예금 가입 선호

올해 들어 지속적 주가하락을 경험한 부유층 일부는 안갯속 증시를 마냥 지켜만 볼 수 없어 결국 펀드의 환매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펀드에 투자한 부자들의 선택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한쪽은 분할 환매하는 경우도, 또 다른 쪽은 환매하지 않고 장기투자를 결심한 쪽이다.

환매를 결정한 부자들은 리스크 축소 차원에서 거치식 펀드의 일부(20~30%)를 분할 환매한 뒤 재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적립식 펀드엔 자동납입을 유지하고 있다.

적립식 펀드는 자동납입 유지

이들은 낙폭이 비교적 작은 국가 위주로 환매 우선순위를 정해 적절한 환매 타이밍을 찾는다. 특히 해외 펀드는 미래일의 증가를 기준으로 환매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요즘처럼 변동이 심한 장에서는 적절한 환매 날짜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 펀드와 달리 국내 펀드는 당일 증가를 반영한 기준가가 환매기준가가 되기 때문에 그날 시황에 따라 환매 타

요즘 부자들 어떻게 투자하나

항목	내용
펀드	-거치식 펀드 중 20~30% 분할 환매 -낙폭 작은 국가 위주로 환매 -적립식 펀드는 계속 자동납입 유지
ELD	-만기 1년으로 주가지수가 장중 한 번이라도 10% 내외로 상승하면 연 9% 정도의 금리가 확정되는 상품 선호
1~3개월짜리 단기 정기예금	-펀드 환매자금으로 투자 -6% 후반대 금리 상품에 넣어 놓은 뒤 시장 상황 보며 재투자할 기회 노림
외화	-해외 외화자산을 국내에 송금해 환전 -호주달러와 뉴질랜드달러 정기 외화예금 가입

이밍을 잡는다. 이들은 환매한 자금으로 1~3개월짜리 단기 정기예금을 선호한다. 정기예금에 묶어두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봐서 재투자할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금리가 많이 올라 이러한 단기 정기예금 금리도 6% 후반대까지 나와 있다.

고금리 정기예금과 함께 주가연동예금(ELD) 상품도 많이 하는 추세다. ELD 상품 중에서도 만기 1년으로 주가지수가 장중 한 번이라도 일정 비율(보통 12% 내외) 이상 상승하면 연 9% 정도의 금리가 확정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주가가 폭락해 향후 1년간 목표 상승률을 한 번쯤은 찍을 확률이 높

다고 보기 때문이다. 장기투자를 하기로 결심한 부자들은 보통 3년 이상을 기다리기로 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주가 하락 폭이 너무 커서 지금 환매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년간의 정기예금 이자를 세후이자율로 계산하면 20% 내외다. 이들은 최근 주가가 단기간에 폭락했기 때문에 3년 정도의 기간이면 그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애초 펀드에 투자하기로 한 것도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긴 안목으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는다.

주가 흐름 못지않게 부자들이 관심 있

어 하는 것이 환율의 동향이다. 유학가 있는 자녀를 비롯해 해외에 송금할 일이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9월 위기설'이 나올 때부터 미리 송금한 경우가 많아 최근의 환율 상승에 따른 손해를 피해갈 수 있었다.

또 환율 변화가 해외펀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 펀드가 환해지를 하고 있어 최근 환율 상승 시기에 재미를 못 보고 있는 만큼 환해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호주달러 외화예금 가입 늘어

해외에 외화자산을 갖고 있는 부자들은 최근 환율 상승 시기를 이용해 외화자산의 국내 송금시기를 조율하고 있고, 실제 달러를 국내에 송금해 환전하는 사례도 많다. 외화 예금 중에서는 최근 단기 외화 정기예금 금리가 연 10% 전후까지 오른 호주달러와 뉴질랜드달러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부자들이 제법 있다.

최봉수 하나은행 방배서래 골드클럽 PB팀장

정리=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펀드 '산이 높으니 골도 깊나'

미래에셋 등 유명펀드 급락장서 자금유출 가장 많아

금융위기 속에 펀드판매가 늘어나면서 인지도 높은 운용사의 대형펀드가 수난을 겪고 있다. 과거 강세장에서 높은 수익률과 큰 덩치로 인기를 끌었던 만큼, 약세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금액도 적지 않다.

19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증시에 타격을 가한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16일까지 한달 동안 국내에서 활동 중인 자산운용사 가운데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가장 많은 2501억원이 순유출됐다. 해외주식형펀드(1521억원)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형펀드에서도 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지난 7월 이후부터 9월16일까지 미래에셋 국내 주식형펀드에 6175억원이 유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락장에서의 환매규모는 두드러진다. 실제로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펀드 가운데 자금 유출세가 큰 펀드 상위 10개 중 8개가 미래에셋펀드다. 이들은 모두 2005년 이전에 설정돼 심리적 만기인 3년을 넘긴 펀드로 순자산 총액이 1조원이 넘는 광물펀드다.

2001년 코스피가 400대였을 때 투자한 장기 투자자라면 엄청난 수익을 얻었겠지만 펀드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5년말 이후 가입한

자금유입 상위 운용사

운용사	국내주식형	해외주식형	총액
교보외환운용	430	-16	414
NH-CA운용	90	37	127
한국밸류운용	114	0	114
SH운용	104	-13	91
ING운용	33	40	73
푸르덴셜운용	4	67	71
한국운용	107	-49	58

자금유출 상위 운용사

운용사	국내주식형	해외주식형	총액
미래에셋자산	-980	-1521	-2501
슈로더운용	-2	-1793	-1795
신한BNPP운용	-93	-1260	-1353
피델리티운용	-94	-599	-693
하이운용	-130	-130	-260
미래에셋팜스	-6	-182	-188
프랭클린템플턴	34	-187	-153
전체	-253	-7004	-7257

단위: 2009.9.17~10.16. 운용펀드 및 ETF 제외. 자료:제로인

투자자라면 괴로울 뿐이다. 코스피가 1200선까지 내려앉자 결국 돈을 댄 '자포자기성' 환매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대형 유명 펀드는 강세장에서 들어오는 돈이 많았던 만큼 약세장에서 환매압력도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그나마 대형 주식형펀드로 꾸준히 자금이 들어왔지만 급락장에서는 '브랜드파워'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현재 미래에셋이 전체 주식형펀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2%로 압도적이다. 최근 시장불안으로 자금 유출이 두드러져 지난 9월 국내 주식형펀드에선 972억원이 순유출되면서 1년5개월 만에 환매금액이 신규 설정액을 웃돌았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16일까지 약 2200억원이 더 빠져나갔다. 한편 해외펀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슈로더자산운용(1795억원)과 신한BNP파리바운용(1353억원)과 피델리티운용(693억원)도 자금 유출세가 컸다.

이에 비해 인덱스펀드의 강자인 '교보파워인덱스파생상품'이 꾸준한 인기를 끌면서 교보외환운용은 414억원이 순유입됐다.

박성희 기자 stargin@

펀드판매 인력 시험 차등화

금감원, 내년부터

현재 단일화돼 있는 펀드판매 인력 시험이 내년부터는 단계별로 차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펀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인력 등급제'가 도입된다.

현재 펀드판매인력은 30시간 교육과 능력평가 시험만 통과하면 펀드상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완전판매가 증가하면서 평가시험을 단계별로 다양화해 상품유형별로 판매인력의 자격 등을 제

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일단 시험인증시험을 3단계 정도로 분류할 계획으로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구체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현재 펀드판매관리위원회가 주관해 지난 2006년 4월부터 시행된 판매인능력시험을 통과해 활동 중인 인력은 모두 13만2,000명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장외 파생상품 감독체계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東亞日報

2008년 10월 18일 토
B06면

환헤지? 환노출?

“최근 노출펀드 수익 높지만
변동성 감안 댄 헤지가 안전”

환율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해외 펀드 투자자들 사이에 '환 헤지'가 큰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대우증권은 17일 “최근 원화 약세로 환헤지를 하지 않은 환노출 펀드의 수익률이 환헤지 펀드보다 높지만, 최근 환율 변동성을 감안 하면 앞으로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는 환헤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원화 가치가 연초보다 29.07% 하락하면서 환노출 펀드의 수익률이 환헤지 펀드보다 14~26%포인트 높았다.

‘삼성당신을위한N재팬주식종류형자’ 펀드는 환헤지 펀드의 1년 수익률이 -48.6%인 데 비해 환노출 펀드는 -20%에 그쳤다. 환헤지 펀드 투자자는 주가 하락과 함께 환차손까지 보는 이중고를 당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시기에 따라 환헤지 펀드의 성과가 더 우수하기도 하는 등 어느 방식이 낫다는 ‘정답’은 없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중요정보

2008년 10월 18일 토요일
014면

MMF로 ... ‘전의 이동’

하루 평균 1조8500억 유입, 14일엔 4조 몰려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주식이나 펀드에서 빠져나간 돈이 머니마켓펀드(MMF)로 몰리고 있다.

17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10월 들어 국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16일 기준)은 1조8000억원이 줄어 9월 전체 감소액(1조12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이 돈을 단기 안전자산인 MMF가 흡수하고 있다. 14일 하루에만 4조원 넘는 뭉치돈이 들어온 것을 포함해 이달 들어 하루 평균 1조8500억원씩 MMF로 몰리고 있다. 16일에도 1조8300억원이 새로 유입돼 전체 설정액은 82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전체 펀드 설정액 가운데 MMF가 차지하는 비중은 22.89%로 늘었다. 반면 주식형 펀드의 비중(39.4%)은 40% 밑으로 떨어졌다.

16일 현재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하루 전에 비해 2882억원 줄어든 141조1395억원을 기록했다. 이날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2795억원,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는 87억원이 유출됐다.

국토교통신한증권 양현민 연구원은 “국내의 주가가 하루 10% 이상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갑자기 커지자 자금이 시장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chdcck@joongang.co.kr

급등락장 ELW 인기장

<주식워런트증권>

하루 수익률 800% 대박도...거래대금 주식시장 7% 달해

주가가 하루에만 50~100포인트 이상 오르내리는 널뛰기장이 지속되면서 주식워런트증권(ELW)이 인기 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요즘처럼 주가 변동성이 클수록 옵션상품의 일종인 ELW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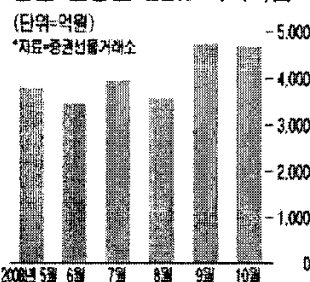
이에 따라 기껏해야 하루 상·하한가 등락폭이 각각 15%인 현물 주식과 달리 ELW는 하루에만 가격이 2~8배나 경총 뛰어오르는 '대박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19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하루 ELW 거래대금이 지난 15일 5084억원, 16일 4321억원, 17일 4835억원 등으로 연일 4000억~5000억원 선에 달하고 있다. 17일 하루 코스피시장 거래대금 6조4221억원과 비교할 때 7.5% 선에 달할 정도로 최근 ELW 시장이 급성장했다.

월간 일평균 ELW 거래대금은 7월 3981억원, 8월 3568억원, 9월 4748억원, 10월 4683억원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증시 ELW 거래대금 사상 최고 기록은 지난달 25일 기록한 5926억원이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시장 패닉으로 주가가 예상치 못한 수준까지 급락하면서 하루에만 몇 배씩 뛰어오르는 ELW 상품이 속출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주가가 폭

월별 일평균 ELW 거래대금



락할수록 차이가 큰 풋(put) 상품이 인기"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코스피가 사상 최대인 126포인트 폭락한 16일 맥쿼리8352코스피200 풋 종목은 주당 1676원으로 마감해 전일 635원에 비해 163.8%나 경총 뛰었다. 이 종목은 28일 후 165포인트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품인데 이날 코스피200은 156.41포인트로 마감했다.

포인트당 100원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론적으로는 859원(8.59포인트×100원)에 거래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앞으로 코스피200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들이 대거 풋 상품 매입에 나서면서 실제 거래가격이 이론가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형성된 것이다. 이 종목은 하루 거래량만 16일 5800만 주, 17일 6800만주에 달했다.

또 지난 16일 대신8228KTF콜

(call) 종목은 전일 대비 800% 상승한 80원, 우리8195 LG전자 풋 종목은 500% 상승한 30원에 각각 거래됐다.

하지만 이날 이들 종목 거래량은 각각 461만주와 481만주에 그쳐 큰 의미는 없다.

최창규 연구위원은 "개별 종목보다는 코스피200 등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상품이 유동성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며 "단기가 최소한 2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변동성이 30~40% 이하인 종목을 골라야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승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ELW는 증권사 수수료가 거래대금의 5% 안팎으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선물·옵션과 달리 일반 주식계좌로 손쉽게 매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하지만 일반투자자들은 적정 가격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ELW (Equity Linked Warrant):

개별 주식 또는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사전에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에 기초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 사거나(call) 팔아(put)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일종의 옵션 상품이다.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때는 콜 상품을, 하락이 예상되면 풋 상품을 사면 된다. **설진훈 기자**

해외자산 판 돈 고금리에금에 넣고 손실 큰 펀드 환매보단 장기투자

■ 금융혼란기 백억대 자산가는...

100억대 자산가인 김인석씨(64·가명)는 최근 밤잠을 설치는 날이 늘었다. 지난해 여름 뒤늦게 가입한 국내의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40% 가까이 빠지고 상가 건물도 임대료가 연세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고민하던 김씨는 평소 거래하던 은행 PB와 상담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2년 전 투자목적으로 구입했다 주택가격 폭락으로 손해를 본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주택을 처분하기로 했다. 다행히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환차익이 발생하면서 손실분을 만회하고도 남았다. 김씨는 이 돈을 3개월에 연 7%대를 보장해 준다는 은행예금에 넣고 당분간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펀드는 이미 환매시기를 놓친 만큼 1년 이상 장기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좀 더 느긋하게 기다릴 생각이다. 여기에 노부부만 살던 198.34㎡ 규모의 아파트를 좀더 작은 크기의 집으로 옮겨 관리비와 세금을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최근 격변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처럼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는 거액 자산가들까지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시중 은행 PB센터와 거래하고 있는 고객들 중 상당수가 펀드 투자로 평균 20~30%, 많게는 40% 이상의 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이관석 제테크 팀장은 "PB고객들은 일반 영업점 고객들에 비해 투자경험이 많다 보니 신중하게 고민해서 본인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절대 금액면에서도 일반 투자자들에 비해 손실이 크지만 선부르게 펀드 환매에 나서기보다 장기 투자로 마음을 돌리거나 시장상황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고객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신규자금이나 만기가 돌아온 자금들은 안전자산이나 고금리를 보장하는 단기 예금이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에 집어 넣고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 해외자산 처분(LA근교 주택), 처분자금은 3개월짜리 7% 보장 예금에 넣어둠
- 펀드손실 40%, 환매시기 놓쳤다고 판단 장기투자로 돌림
- 노부부만 살던 대형아파트 규모 줄여 이사하기로 결정

부동산자산의 경우 포트폴리오 상에서 아직까지 큰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전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하락을 염두에 둔 일부 고객들은 투자목적으로 사들였던 부동산을 정리할지 여부를 상담해 오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세금 절감 등 불필요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거주 아파트를 줄여 이사가는 모습도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다. 실제 최근 서울 강남의 초고가 주상복합단지 내에 서도 그동안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던 급매물들도 속속 목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눈에 띄는 부분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동안 환차익을 노려 해외 자산을 처분해 자금을 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주 환율

이 1500선까지 근접하자 고점에 달했다고 판단한 고액자산가들이 해외 자산 처분을 통해 확보했던 달러 자금을 국내에 들여와 대거 환전하고 이를 다시 3개월짜리 예금이나 MMDA 등의 상품에 잠시 가입했다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 선통역 골드클럽의 정상영 PB팀장은 "해외 자산 처분과 관련한 상담이 최근 1~2주 사이 부쩍 늘고 있다"며 "투자목적으로 보유했던 해외 부동산 정리 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거액의 외화 예금에 가입했거나 해외펀드에 가입하면서 선물한 약정을 해지했던 고객들도 펀드 손실을 만회할 정도의 환차익을 보고 있다. [jiskang@fnnews.com]

강두순 김명지기자

‘산은트렌드롱숏US~’ 수익률 33%

‘산은트렌드롱숏US재간접펀드’가 설정 한달여 만에 3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19일 산은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국내 최초의 재간접 롱숏 펀드로 설정된 ‘산은트렌드롱숏US재간접펀드’는 36일 만에 수익률 33%를 기록했다.

이 펀드는 장기 상승기에는 미국 시장(S&P500) 수익률의 1.8배, 장기 하락기에는 동 수익률을 역으로 1.0배 추종한다는 목표로 뉴욕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된다. 펀드 설정 후 장기 하락 국면에 맞도록 포트폴리오를 운용했는데 그간 미국 시장이 급락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게 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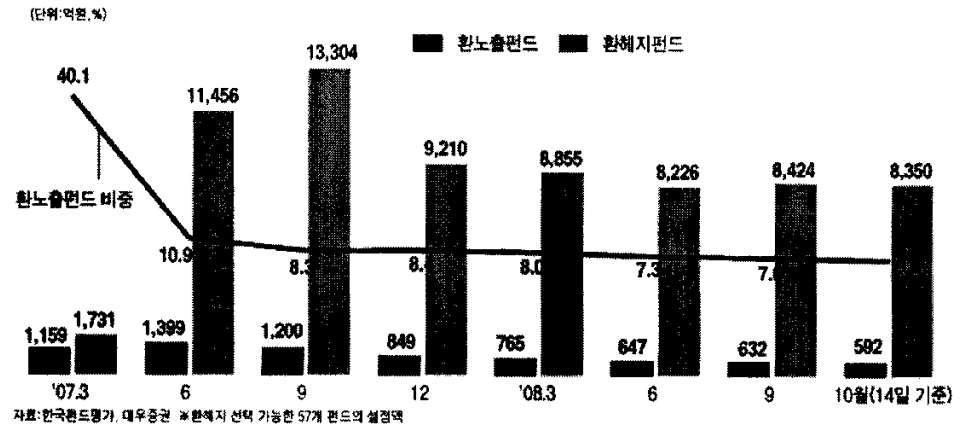
이 펀드를 운용하는 서기원 글로벌투자본부장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지만 S&P500지수는 3~4개월 내에 저점 대비 20~30%의 단기 급반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최근

주가 급락 시 쇼트 포지션을 일부 덜어내 수익을 실현하고 롱 포지션을 일부 추가, 포트폴리오의 순시장노출도를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ug@fnnews.com]안상미기자

최근 환율변동이 극심해지면서 환헤지펀드가 환헤지를 하지 않은 환노출펀드의 수익률에 크게 못미치고 있지만 장기 투자의 경우 환헤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우증권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변동성이 높아진 시기에는 환율에 전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며 "투자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무리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헤지펀드와 환노출펀드 설정액 추이



“장기투자자, 환헤지펀드가 적합”

대우증권 보고서

대우증권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원화 가치가 연초 대비 29.07% 하락하면서 환노출펀드가 환헤지펀드보다 14~26%포인트의 추가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환헤지펀드의 경우 주기하락으로 운용수익률이 떨어진데다 원화로 환산 평가시 환차손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손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많은 해외 펀드들이 개인이 직접 환헤지를 선택할 수 없게 돼 있고 그나마 있

변동성 높아져 수익보단 위험회피 전략 필요
환노출, 수익률 높다지만 과거 환차손 경험도
거치식·환헤지·적립식·환노출이 비교적 안전

는 환헤지 선택 펀드의 경우에도 70% 이상의 투자자들이 환헤지를 선택해 실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거둔 펀드 가입자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병훈 대우증권 자산관리컨설팅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원화 대비 연화가 약세를 보였을 때는 환노출펀드에서 환차손을 보여 기

준기가 낮았던 적도 있었다”며 “과거 환노출펀드의 성과가 항상 앞섰던 것은 아니고 환율변동에 따라 환차손익이 반복되면서 환헤지펀드와 환노출펀드의 성과는 앞지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펀드 환매시점의 환율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면

환차손은 피하고 환차익을 쟁길 수 있지만 금융위기와 맞물려 환율의 변동성이 너무 커져 움직임을 예측해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환율변동을 통한 수익을 추구하는 건 자칫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거치식 이라면 환헤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환헤지를 하지 않을 때는 적립식투자로 환위험을 덜 수 있다”며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환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환율로 해외자산을 구입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환헤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fct@sed.co.kr

펀드 1년새 57조원 날렸다

작년 번돈의 2.5배...해외주식형펀드 손실률 50%

전 세계 증시 급락에 해외주식형펀드 1년 수익률이 -50%로 떨어지면서 31조원이 증발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펀드는 1년 손실률 34%를 기록하며 손실 규모는 25조7006억원에 달했다.

수익률 급락으로 1년 동안 국내와 주식형펀드에서만 57조2357억원이 사라진 셈이다. 이는 1년 전 주식형펀드 전체 순자산 126조5271억원 대비 45%에 해당하는 규모다.

제로인에 따르면 16일 기준(15일 종가 반영)으로 설정액 10억원 이상에 1년 이상 운용된 해외 주식형펀드 506개 1년 수익률이 -50.02%를 기록했다. 국내 주식형펀드 683개는 같은 기간 평균 34.60% 손실을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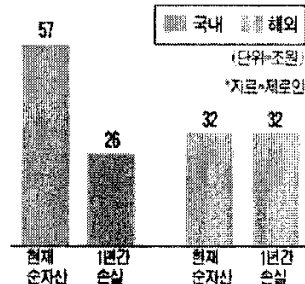
최근 1년 새 해외주식형펀드에 대한 자금 유입(4조5443억원)을 고려해보면 1년 사이에 해외펀드에서만 31조5351억원이 증발한 것이다.

2007년 한 해 동안 해외펀드 투자로 벌어들인 돈은 총 9조170억원이었다. 9조원 수익에 고무돼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린 결과 벌어들인 것에 비해 3.5배에 달하는 금액을 1년 사이에 날려버린 셈이다.

펀드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한 이후 펀드 투자자 성적표는 득보다 실이 많았다. 특히 해외펀드에서는 MSCI월드지수 1년 하락률(-43.93%)보다 손실 폭이 큰 것은 신홍시장 증시 하락 폭이 큰 때문이다. 즉 중국과 브릭스펀드 등 신홍시장 쏠림현상이 손해를 키운 셈이다.

신홍국 중에서도 국내 펀드 투자 자금이 쏠려있던 중국펀드가 손실

주식형펀드별 순자산과 1년 새 손실



률이 높았다. 최근 1년간 홍콩H지수가 58.62%나 하락한 영향으로 국내에 출시된 중국펀드는 1년간 평균 57.34%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세계 증시 상승기에 특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온 중국과 신흥시장 펀드에 대한 자금 쏠림이 하락장에서는 손실폭 확대라는 반대급부를 가져온 셈이다.

16일 기준으로 설정액 10억원 이상에 1개월 이상 운용된 전체 해외주식형펀드 순자산은 16일 현재 34조5011억원이다. 이 중 35% 가까운 11조9575억원이 중국펀드에 몰려 있으며 브릭스펀드 등 신흥국 주식펀드에도 9조2963억원(26.95%)이 쏠려 전체 중 61.6%를 차지하고 있다.

개별펀드에서도 수익률 하위는 중국펀드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1년 수익률 최악의 불명예는 해외주식형 중에서는 미래에셋차이나인프라채터주식형으로 손실률이 72.30%에 달했다. 역으로 PCA일본대표기업주식자1-2시리즈는 3.59% 손실에 그치며 수익률 1위에 올랐다. 이 펀드가 선방한 것은 환율 영향이 컸다. 동일한 상품으

1년 수익률 상·하위 주식형 펀드

(단위:%)

펀드	1개월	6개월	1년	연초 후
국내 상위				
한국투자아베배당인덱스주식M-1	-5.12	-16.34	-23.02	-20.26
PCA KODI주식D-1클래스C	-5.37	-16.48	-22.79	-20.15
프런티어배당인덱스주식F-1	-5.49	-16.39	-22.45	-19.75
프런티어배당인덱스주식CLASS C1	-6.36	-15.47	-19.60	-20.58
삼성소비재강국코리아주식전환형자2	-7.22	-13.65	-19.27	-19.46
국내 하위				
삼성기초산업강국코리아주식전환형자2	-13.57	-32.18	-49.55	-41.01
우리CS부울경우량기업플러스주식투자1C1	-12.40	-33.35	-48.50	-41.25
볼리스코트LS주식ClassA	-11.47	-32.80	-48.09	-40.57
동양중소형고배당주식1	-13.68	-27.90	-45.57	-34.71
삼성우량주강가-CLASS A	-7.93	-25.09	-45.13	-34.69
국내주식형 유형평균	-8.06	-23.04	-34.60	-28.51
해외 상위				
PCA일본대표기업주식자-2ClassC	-1.70	-0.42	-3.59	-1.42
우리Commodity인덱스플러스파생상품1ClassC1	-17.73	-27.97	-9.84	-16.48
PHEONIX Japan Unhedge주식자1ClassA	-5.05	-5.53	-10.75	-7.84
미래에셋글로벌자산Commodity인덱스파생상품1ClassB	-20.90	-31.54	-12.85	-19.10
미래에셋글로벌자산인덱스주식1(CLASS-A)	-5.13	-6.07	-12.90	-7.40
해외 하위				
하나UBSChina주식자1ClassC	-24.86	-45.48	-63.50	-57.97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주식2(CLASS-A)	-20.10	-38.75	-63.95	-57.15
미래에셋차이나인프라채터주식형자1CLASS-A	-27.80	-48.60	-64.70	-63.30
JP모건러시아주식종류형자1A	-46.39	-64.37	-65.71	-66.11
미래에셋차이나인프라채터주식형자(CLASS-A)	-26.66	-51.98	-72.30	-65.95
해외주식형 유형평균	-19.72	-35.68	-50.02	-46.28

*16일 기준. 1년 이상 운용된 펀드 대상. ETF 제외. 자료=제로인

로 환헤지를 실시한 PCA일본대표기업주식자1-1시리즈는 대표클래스가 -38.60%를 기록해 환헤지 여부에 따라 31%포인트 격차가 발생했다.

국내주식형펀드에서는 삼성기초산업강국코리아주식전환형자2가 49.55% 손실로 꼴찌를 기록했다. 가장 양호한 성과를 거둔 상품은 삼성KODEX자동차ETF(상장지수펀드)였으며 ETF를 제외하면 삼성소비재강국코리아주식전환형자2가 -19.27%로 가장 선방했다. 국내 펀드에서 ETF 선방은 눈에 띄었다.

반대로 적극적인 매매로 시장 초과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성장주펀

드들은 하락률 상위에도 포함됐다.

클래스(수수료에 따라 클래스가 나뉨)별로 따지면 1조원 이상이 몰린 공통펀드를 포함해 수익률 하위 100개 펀드 중 20개가 순자산 1000억원 이상이었다. 그러나 해외펀드 수익률 상위펀드 100개 중 순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펀드는 총 5개에 불과하다. 폭등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내는 신흥시장 펀드로 몰린 군중심리로 분산투자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결과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 없이 투자에 나서다 보니 지수가 최고점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진 것도 손실을 키우는 데 한 몫했다"고 지적했다. 정욱기자

‘금리때문에’ 채권펀드 희비

국채·사채 편입자산 따라 수익률 천양지차

증시 침체에 투자대안으로 떠오른 채권형펀드가 편입자산에 따라 수익률이 극명한 대조를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이후 국고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펀드는 수익률이 좋아지는 반면 은행채, 회사채 등 사채에 투자하는 채권형펀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9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채권형펀드의 최근 1개월 평균수익률(설정액 100억원 이상 10월16일 기준)은 0.34%로 주식형펀드(-8.05%)를 크게 앞질렀다.

펀드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국고채 등 안전자산 편입비중이 높은 펀드들이 수익률 상위권을 휩쓴 반면 은행채, 회사채 등 사채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하위권을 맴돌았다.

펀드별 1개월 수익률을 살펴보면 삼성투신운용의 'ABF코리아 인덱스종류채권 Class A'가 1.37%로 성적이 가장 좋았다. 이 펀드는 국고채 편입비중이 60% 이상이고 나머지 자산도 지방채, 특수채 등 주로 안정성이 높은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PCA투신운용의 'PCA스탠다드플러스채권I-34 ClassC-F'와 삼성투신운용의 '삼성장기주택마련채권 I',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엄브렐러채권형C-1'이 각각 1.27%, 1.13%, 1.06%의 수익률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펀드 역시 국고채, 통화안정증권 등 안전자산에 집중 투

채권형펀드 수익률 현황

펀드명	운용사명	설정일	설정액	1개월	연초이후	설정이후
ABF Korea인덱스종류채권 CLASS A	삼성	20050426	1,840	1.37	5.04	13.17
PCA스탠다드플러스채권I-34 ClassC-F	PCA	20040102	2,351	1.27	5.16	20.95
삼성장기주택마련채권 I	삼성	20030117	145	1.13	4.82	22.05
미래에셋엄브렐러채권형(C-1)	미래에셋(자)	20070508	129	1.06	5.31	6.14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 1(CLASS-I)	미래에셋(자)	20060912	1,320	0.87	5.30	7.19
신원국공채장기채권SH-1	신원BNFP	20020227	1,400	0.73	4.42	34.47
KB장기주택마련채권 I	KB	20030124	390	0.71	2.59	26.17
삼성우량채권종류채권 1_C	삼성	20000327	194	0.65	4.43	52.72
그람프라이드국공채 1 C클래스	기온SG	20050117	582	0.55	4.96	16.15
그람프라이드국공채 1 A클래스	기온SG	20050117	114	0.54	4.92	15.93
알파에셋위너스채권형 1(C-C 1)	알파에셋	20080121	883	0.49		4.83
아이러브명생직장채권 2ClassC2	아이	20070129	1,449	-0.21	4.34	9.24
하나UBS클래스장기채권S-1	하나UBS	20031110	224	-0.23	3.95	25.56
뉴에코인도채권S-1	하나UBS	20000823	314	-0.25	3.30	39.20
도이치코리아채권I-1Cis A	도이치	20031013	405	-0.29	3.87	26.51
BEST CHOICE다기채권 4	SH	20011218	273	-0.37	3.18	36.41
푸르덴셜리차플러스채권 I	푸르덴셜	20080805	125	-0.44		0.61
아이러브명생직장채권 3ClassC 2	아이	20070723	602	-0.49	3.37	5.21
하나UBS회사채 1Class C	하나UBS	20080502	282	-0.54		0.92
아이러브명생직장채권 6Class C 2	아이	20080725	445	-0.58		0.14
아이러브명생직장채권 5Class C2	아이	20080516	895	-0.97		-0.64
동양메리츠국공채 1ClassC-1	동양	20071004	204	-1.30	0.85	1.58
아이러브명생직장채권 4Class C 2	아이	20080204	438	-1.77		-0.54

*기초:설정액 100억원 이상, 1개월 16일, 자료:한국펀드평가, 단위:억원, %

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은행채와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아이투신운용의 '아이러브명생직장채권 4Class C2'는 -1.77%의 수익률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1위 펀드와 수익률이 3.14%포인트나 차이가 난 것이다.

펀드간 수익률이 극명히 엇갈린 이유는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이후 국고채 등 안전자산 금리는 하향 안정화된 반면 은행채 회사채 등 사채

금리는 오히려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통상 채권형펀드의 기초자산이 되는 채권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박현철 메리츠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미국발 금융위기 등 실물경제가 불안해지고,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질 때는 펀드내 편입 채권을 잘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성민·임상연 기자 baesm@

변액보험, 채권형펀드로 갈아탈만

연 12회까지 펀드 변경 가능...적립식은 현행유지가 유리

증시 침체가 계속되면서 변액보험 가입 고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주가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계약자의 경우 '펀드 변경 제도' 활용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한다.

일시납으로 가입한 계약자나 주식형펀드의 비중이 높은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주식형펀드 비중을 줄이는 대신 채권형펀드의 비중을 늘려 위험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17일 기준으로 변액보험 주식형펀드 89개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11.57%였다. 3개월, 6개월, 1년 수익률 평균은 -17.13%, -26.49%, -32.76%였다. ING생명의 '라이프인베스트변액연금' 시스템주식형펀드의 경우 1개월 수익률이 -6.16%, 1년 수익률이 -19.83%였다.

반면 변액보험 채권형펀드 113개의 평균수익률은 1개월이 0.1%, 3개월이 1.65%, 6개월이 0.83%, 1년이 4.14%였다.

생명보험협회의 변액보험 펀드 분류 기준에 따르면 주식형펀드는 자산 중 주식 편입 비율이 60%

변액보험 채권형펀드 수익률

(단위=%)

보험사	상품 및 펀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대한	변액CI/ 전환변액CI/ 교직원변액CI 채권형	0.41	2.14	0.9	4.92
교보	교보변액종신/교보베스트플랜변액종신채권형	-0.73	1.3	-0.86	3.26
삼성	삼성변액연금 채권형	-0.6	1.18	-0.44	3.35
메트라이프	MyChoice변액연금 채권형	-0.63	0.73	0.26	3.85
채권형 펀드(113개) 평균		0.1	1.65	0.83	4.14

변액보험 주식형펀드 수익률

(단위=%)

보험사	상품 및 펀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알리안츠	변액유니버설보험I/II/III/IV/V 성장형	-11.78	-18.57	-31.21	-38.7
AIG	인베스트/프레스티지/수퍼스타 주식형	-9.11	-15.12	-28.65	-39.05
ING	라이프인베스트변액연금 시스템주식형	-6.16	-9.37	-16.65	-19.83
메트라이프	MyFund변액유니버설 혼합성장형	-11.74	-17.87	-29.81	-37.38
주식형 펀드(89개) 평균		-11.57	-17.13	-26.49	-32.76

*순자산 규모 상위 펀드, 수익률은 17일 기준, 자료=생명보험협회 공시

이상인 상품을, 채권형펀드는 채권 비중이 60% 이상이고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는 상품을 말한다.

변액보험 계약자는 별도 수수료 없이 보험가입일 기준으로 최대 12년까지 펀드 변경이 가능하다. 주식형펀드를 채권형펀드로 갈아타면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입게 될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채권값이 오르면 매매차익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박대양 알리안츠생명 자산운용 실장은 "안정적 자산관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식형 자산의 일부를 안정적인 채권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재영 삼성생명 FFP센터 팀장은 "일시납 가입자나 주식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 채권형펀드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부는 펀드 변경은 삼가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신호영 대한생명 경인FA센터장은 "적립식 가입자의 경우 주가 하락기는 평균 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채권형펀드로 갈아타면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만기가 5년 이상남아있는 가입자의 경우 현재 펀드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노현기자

급락장 '공포특급' 1주일만 견뎌내면 ...

90%가 5거래일 내 상승 반전 ... 4번은 내린 것보다 더 올라

국내 10대 주가 폭락 되돌아보니

회사원 홍민기(36)씨는 요즘 주가가 급락하는 날엔 아예 온라인 주식 거래 프로그램(HTS)을 꺼버린다. 급락에 놀라 주식을 팔았다간 손해만 커준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체득한 뒤부터다. 그는 "지난달 중순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 갖고 있던 조선주가 하루 10% 넘게 빠졌다"며 "하지만 일주일일을 버텼더니 급락 전보다 되레 오르더라"고 말했다. 홍씨는 "앞으로 낙폭이 지나친 날엔 거래를 피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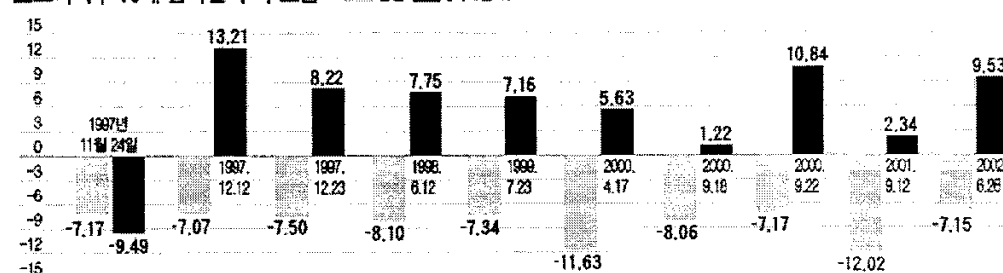
반짝 오르는 듯하던 주가가 지난주 중반 이후 다시 주저앉으면서 투자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무리 장기 전망이 나쁘다 해도 주가의 단기 급락이 지나칠 때 주식·펀드 투자를 삼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일시적으로라도 일부 반등해 낙폭을 줄일 가

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직 낙하는 없다=주가는 오를 때든, 떨어질 때든 한쪽으로만 계속 내달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큰 폭에서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중간에는 등락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낙폭이 컸을 때는 물리학의 작용·반작용 법칙처럼 다시 튀어오르려는 힘도 상대적으로 강해진다.

코스피지수가 발표된 1983년 이후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날 이후 주가 흐름을 봐도 그렇다. 아직 주가를 볼 만큼 시간이 지나지 않은 16일(9.44% 하락, 역대 3위)을 빼면 열 번 중 아홉 번이 급락한 날로부터 일주일(5거래일) 후 주가가 올랐다. 97년 12월 12일의 경우 당일 하락률은 7.07%였지만 일주일 뒤 상승률은 13.21%에 달했다. 이날을 포함해 열 번 중 네 번은 일주일 뒤 지수가 급락

코스피지수 10대 급락일 주가 흐름



하기 전보다도 더 높았다. 시간을 하루로 좁혀도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를 확률이 많았다. 열 번 중 여섯 번이 급락 다음날 반등했다.

하락률이 아닌 하락폭 기준 역대 10위를 봐도 결과는 비슷하다. 다음 날 지수가 반등한 경우가 여섯 번, 일주일 뒤 기준으로는 일곱 번이나 주가가 올랐다. 교보증권 황빈아 연구원은 "손절매할 수준을 넘긴 투자자라면 주가가 갑자기 빠지는 날은 일단 버티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주가 조율증' 피해야=요즘처럼 증시가 널뛰기를 할 때일수록 시장 상황에 따라 일회일비해선 안 된다. 웬만큼 감심장인 사람도 주가가 조금 오르면 마음을 놓게 되고, 떨어지면 다시 불안해져 팔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시장이 공포에 휩싸인 날은 아예 시세를 안 보는 것도 방법이다.

시세에 휘둘리는 것도 위험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다음날 오르면 팔겠다는 전략도 그리 안전하지 못하다. 한두 번만 잘못 짚어도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서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16일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도 17일 반등에 실패한 이유는 기관 투자자가 손절매 물량을 하루에 다 못 판 게 한 원인이 됐다"며 "하루치기 단타 매매에 나섰던 사람은 제법 손해를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김학균 수석연구원은 "주가 '조율증'을 버려야 개인 투자자도 손해가 줄고, 금융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하기자
odinelec@joongang.co.kr

운용사 분산투자 하지않고 브릭스시장 집중 투자자 입소문-과거성적 믿고 묻지마 가입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펀드'가 출시 1년 만에 원금의 절반을 까먹었다. 지금 성적만 놓고 본다면 당시 이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는 신기루로 판명된 셈이다.

인사이트펀드의 몰락은 △분산투자라는 원칙 무시 △펀드 운용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투자자들의 '묻지마'식 투자 등 여러 요인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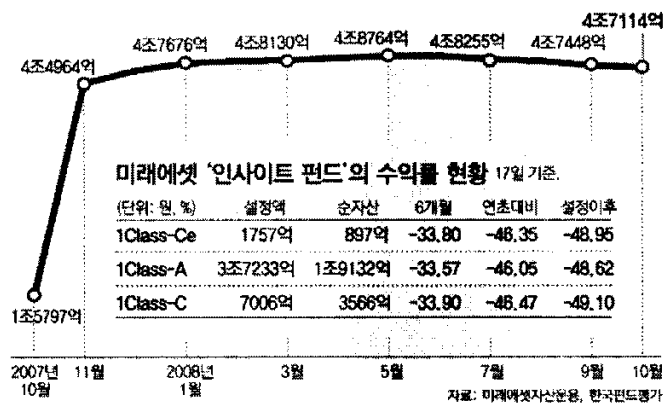
그만큼 국내 자산운용업체와 펀드 투자자들이 이를 계기로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2조 원 이상 하중에 넘어

19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설정된 '미래에셋인사이트 혼합형자 1Class-A' 펀드의 설정일 대비 17일 현재 수익률은 -48.62%로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설정액도 올해 5월 말(4조8764억원)을 정점으로 매달 줄어들면서 15일 현재 4조7114억 원까지 떨어졌

인사이트 펀드 설정액 추이 (단위: 원) 각 월말 기준, 2008년 10월은 15일 기준.



을 키웠다.

6월 말 운용보고서에 따르면 이 펀드의 국가별 투자비중은 중국(홍콩) 61.05%, 브라질 7.12%, 러시아 5.41%, 인도 1.66% 등으로 브릭스의 비중이 75%를 넘는다. 투자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의 상하이종합지



인사이트(Insight·통찰력) 펀드

지난해 10월 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수익을 낼 만한 곳을 찾아 투자대상을 자유롭게 옮긴다"는 전략으로 출시한 해외주식형펀드. 이 펀드는 설정 이후 한 달간 약 4조 원의 시장 자금을 끌어모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

수익률 마이너스 48%... 설정액 갈수록 줄어

미래에셋측 "가능성 있는 곳에 투자했을 뿐"

다. 설정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수익률 악화를 참지 못하고 중도에 환매하는 투자자가 많아졌다는 얘기다.

저조한 수익률은 물론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증시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다른 해외펀드들과 비교해도 성적이 그리 우수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이 펀드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46.05%로 같은 유형의 글로벌주식펀드(-44.92%)는 물론이고 전체 해외 주식형펀드(-45.17%)보다도 수익률이 낮았다. 미래에셋은 이렇게 손실을 내면서도 다른 펀드보다 더 많은 운용수수료(순자산 대비 연 1.5%)를 투자자에게서 퍼갔다.

● 분산투자 원칙도 안 지켜

인사이트펀드는 '효율적인 분산투자'로 시장 위험에 대처한다'는 홍보와 달리 운용 자금의 대부분을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에 투자해 손실

수와 홍콩H지수는 각각 작년 고점 대비 60% 이상 급락한 상태다.

여기에는 "중국 경제가 주식투자 광풍이 분 뒤 급속히 식을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는 등 상황 판단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인사이트펀드는 당시 '직판에 따라 투자하는 펀드', '돈이 되는 곳이 아니면 어디든 투자하는 펀드' 등으로 홍보되고 심지어는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직접 운용한다"는 입소문까지 퍼졌다. 이런 소문은 미래에셋측이 일부 부인하기도 했지만 판매사들을 중심으로 확대 재생산됐다.

● 투자자의 쏠림 현상

일부 투자자의 쏠림 현상도 사태를 키웠다. 다른 운용사에 비해 실적이 좋은 미래에셋이 야심 차게 내놓은 대표 펀드라는 것에 솔깃해 '묻지마'식 투자를 감행한 것. 이 펀드에 '올인(다걸기)'하는 투자자도 많았다. 무

자자들은 펀드 가입을 위해 은행 창구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섰고, 일부 은행에서는 판매 일주일 만에 한도액이 소진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자산운용업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인사이트펀드의 실패는 운용사와 판매사, 투자자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한 자산운용사의 분부장급 임원도 "작년까지 약 4~5년간 주가가 오르는 것만 경험해온 사람들이 높은 수익률에는 항상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기 마련이라는 투자의 정석을 잠시 잊어버린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인사이트펀드가 다른 해외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산투자를 하되 가능성이 있는 곳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두고 '몰빵 투자'라고 비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장기 펀드 ‘너마저’

상당수가 3년 수익률 마이너스
거치식보다 적립식 손실 더 커

올들어 주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3년 이상 운용된 장기 펀드들도 상당수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가가 3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면서 거치식보다 적립식 펀드의 손실이 더 커지고 있다. 주가 하락폭이 워낙 커지면서 적립식 펀드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19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2005년 이전에 설정돼 3년 이상 운용된 순자산 100억원 이상의 국내 주식형펀드 143개 중 16개(11.2%), 해외 주식형펀드 14개 중 10개(71.4%)가 17일 현재 3년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주식형펀드에서는 2005년 9월 설정된 산온자산운용의 '산온S&P재팬주식 1ClassA'의 3년 수익률이 -39.55%, 2004년 12월 설정된 삼성투신운용의 '삼성인컴플러스파생상품1'이 -28.5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형펀드에서는 2005년 8월 설정된 신한BNPP투신운용의 '프레스티지코리아테크주식2' '프레스티지코리아테크적립주식1'이 각각 -19.55%, -18.98%의 수익률을 보였다.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2004년 11월 설정된 한국투자자산운용의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주식 1(A)이 42.84%, 해외 주식형펀드 중에서는 2004년 11월 설정된 신한BNPP투신운용의 '봉주르차이나주식1'이 43.12%의 수익률을 기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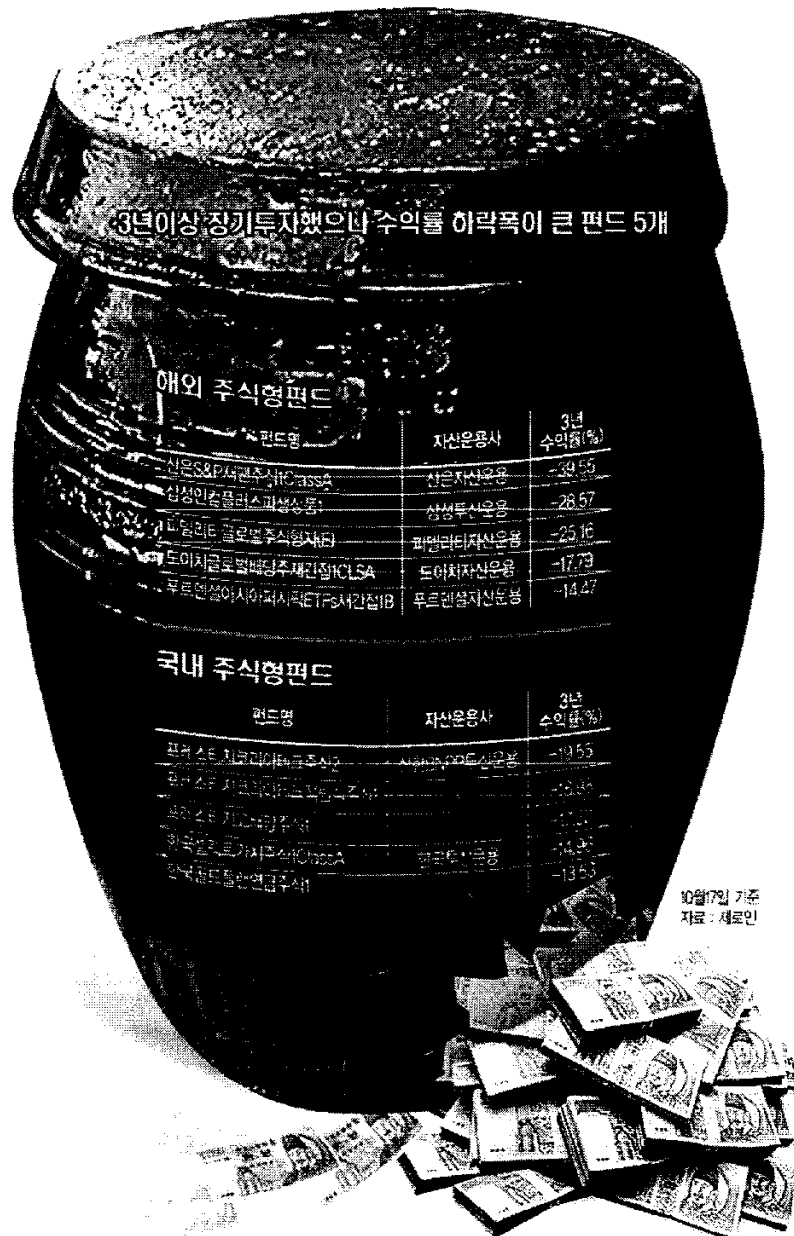
하나대투증권 서경덕 연구원은 "해외펀드는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평균 20~30%의 수익률을 나타냈지만 올해 전 세계적으로 주가 하락폭이 커지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펀드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주가 하락폭이 커지면서 적립식 장기투자 펀드들도 손실폭이 커지고 있다. 2005년 12월 중순 신한BNPP투신운용의 '프레스티지코배당주식1' 펀드에 매달 20만원씩 적립식으로 가입했던 직장인 박모씨(36)의 경우 2년10개월 만에 100만원이 넘는 원금 손실을 입었다. 19일 현재 박씨가 가입한 펀드 수익률은 -20.09%를 나타냈다. 2005년 10월부터 PCA업종일등적립주식 K1'에 월 10만원씩 납입한 구모씨(37)도 투자 원금 16.7%를 손해봤다.

국토농신한증권 김중철 연구원은 "3년 전에 거치식으로 펀드투자를 시작했다면 당시 코스피 지수와 현재 주가가 비슷해 원금까지 손실될 우려는 없다"며 "하지만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코스피지수로 평균 1700선에서 매수한 셈인 만큼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코스피지수는 3년 전인 2005년 10월13일 1193.44에서 지난해 10월31에는 2064.85로 급등한 뒤 올들어 급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17일 현재 1180.67을 기록했다.

김 연구원은 "폭락장에서는 장기 적립식 펀드도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적립식 펀드는 3년이나 5년 등 기간을 정해 투자하기보다는 수익이 20%가량 나면 환매한다는 식으로 목표 수익률을 정해 놓고 투자해야 손실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박병률기자



해외펀드 수익률 짹짹해도 환헤지로 변동성 줄여야

환헤지를 하지 않는 펀드들이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헤지형이 더 낫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율 등락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의 성과만을 보고 노출형에 가입했다가는 손실 폭이 커질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환노출형을 고집하는 투자자라면 적립식 투자를 통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

이병훈 대우증권 자산관리컨설팅 연구소 연구원은 환노출 펀드를 택하는 것에 대해 '무리한 수익률을 추구

하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즉, 환율 등락에 대해 방향성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노출을 택하는 것은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이 연구원은 안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환헤지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들어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동일한 펀드들 사이에서도 환헤지 여부에 따라 1년 수익률이 많게는 33%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 10월 13일자 A21면 보도

그러나 국내에서 출시된 환헤지선

환헤지 여부에 따라 희비 갈리는 펀드수익률

(단위=%)

펀드	환헤지 여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연초
대신지구온난화투자주식종류형-자 1Class A	○	-27.10	-34.37	-38.11	-46.34	-45.68
대신지구온난화투자주식종류형-자 2Class A	×	-16.71	-22.75	-24.70	-28.65	-29.64
삼성당신유한N재팬주식종류형자 1_A	○	-28.99	-35.96	-35.45	-53.32	-46.40
삼성당신유한N재팬주식종류형자 2_A	×	-7.92	-10.14	-11.48	-19.80	-14.02
삼성라틴아메리카주식종류형자 1_A	○	-33.55	-44.32	-46.35	-45.92	-44.87
삼성라틴아메리카주식종류형자 2_A	×	-24.56	-30.84	-31.54	-26.41	-26.99
푸르덴셜동남아시아주식자(H)-A	○	-20.66	-34.32	-41.04		-50.33
푸르덴셜동남아시아주식자(UH)-A	×	-6.92	-16.54	-23.44		-32.34
프랭클린템플턴재팬주식형자(A)	○	-30.91	-37.13	-39.04	-56.57	-47.93
프랭클린템플턴재팬플러스주식형-자	×	-8.90	-9.90	-14.78	-28.05	-17.20

※ 13일 기준, 자료=제로인

택 가능 펀드 중 환노출형 비중은 6.6%에 불과하다. 투자자 입장이자면 당장이라도 환노출형으로 갈아타고 싶어지는 상황에 대해 이 연구원은 "거치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 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환헤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환헤지를 하지 않을 때는 적립식 투자로 환위험을 덜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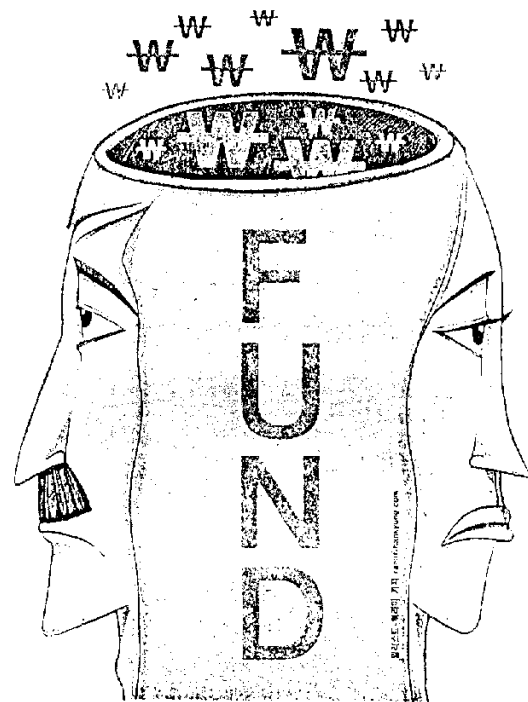
다"며 "적립식은 정기적으로 펀드를 매수하기 때문에 환율이 변동된다 해도 서로 다른 환율로 해외 자산을 구입해 어느 정도 환헤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환노출을 선택할 때는 환차익에 대해 세금(14.5%)이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정욱 기자

애물단지 펀드 지금이라도...

3~5년 중·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원금 회복기회 분명히 있어
길게 보고 호흡을 조절해야



2006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단독주택을 20억원에 매각한 A씨(63). 그는 이 자금을 한 시중은행 강남 프라이빗 뱅킹(PB)센터를 통해 당시 한창 열풍이 불던 펀드에 투자했다. 한때 연 수익률이 최고 30%에 달하기도 했던 A씨의 펀드는 요즘 수직낙하해 반토막나 있다. 그는 밤잠을 설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노후 대비용'으로 묻어둔 이 자금의 절반가량이 허공으로 날아갔기 때문이다. A씨는 지금이라도 손절매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강남 부자들도 패닉 상태에 빠졌다. 부자들의 경우 투자 원금이 일반인들에 비해 큰 만큼 손실의 절대액도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크다. 때문에 지난 수년간 투자에서 승승장구하던 부자들 역시 최근에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밤잠을 못이룰 정도로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800명가량의 고객을 관리 중인 한 시중은행 강남 PB센터. 이 센터

고객의 상당수는 30억~40억원대의 금융자산을 굴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 고객의 거의 대부분이 투자 원금 대비 40~50% 정도의 평가손실을 보고 있다는 게 이곳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2005년 하반기에 노후 대비용으로 25억원의 자금을 펀드에 투자한 한 고객은 현재 평가금액이 13억7000여만 원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곳에서 근무 중인 10명의 PB팀장은 요즘 하루 일과를 고객들의 하소연을 듣는 것에서 시작해 하소연 들어주는 것으로 끝난다. 고객 가운데 몇몇은 하소연이 아니라 욕설을 쏟아내기도 한다.

이 센터의 한 PB팀장은 “그나마 우리 센터는 사정이 나은 편”이라며 “다른 센터의 경우 흥분한 고객으로부터 맥살을 잡히는 등 최근 1~2개월 새 폭력을 행사당한 PB팀장들도 많다”고 험악한 분위기를 전했다.

폭락장 속에서 부자들이 가장 금해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펀드를

환매해 남아 있는 자금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부자고객의 염려에 대해 일선 PB팀장들은 “빚을 내서 투자한 경우가 아니라면, 앞으로 3~5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들고 가는 게 낫다”고 조언하고 있다.

중·장기 보유론을 주장하는 상당수 PB팀장들은 한국이 이미 겪었던 과거의 예를 들며 부자고객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최악의 침체기였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절에도 1997년 이후 3년6개월가량이 지나고 전고점을 회복했다는 것. 2000년대 초반의 IT버블 붕괴 때도 2년 만에 주가가 회복됐다.

문제는 지금의 투자환경이 그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달라졌다는 데 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국내 주식시장에 한정돼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전 세계 이머징마켓으로 넓어졌다.

국내 증시의 경우 반등 시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해외 증시의

경우 언제 다시 정상화될지 가능하기 어렵다는 게 부자들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최악의 시기였던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전 세계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지역이 아시아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도 다르다. 전문가들 가운데 이번 위기를 1930년대 대공황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강우신 기업은행 분당파크뷰지점 PB팀장은 “굴리는 돈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부자들은 돈을 벌 때도 그렇지만, 돈을 잃을 때도 그 규모가 크다. 이런 이유로 지금 상황은 부자들이 객관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3~5년 중·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길게 보고 호흡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펀드통보다 무서운 펀드痛… 약이 없다”

줄줄 새는 펀드, 가슴 뚫린 투자자들

자동차 보급대수(1640만대)보다 많은 펀드 가입숫자(2400여 만 계좌) 덕에 ‘펀드 공화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이 온통 ‘펀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증시가 폭락했을까 봐 ‘아침이 무섭다’는 투자자들이 넘쳐나고 인터넷 펀드 카페엔 ‘나의 펀드 실패담’ 같은 엽기적인 사연 소개 코너가 더 성황 중이다.

연초 이후 개인 펀드 투자자들의 손실액만 61조7000억원, 1500여 개의 펀드 상품 중 연초 후 수익률 플러스인 펀드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펀드 스트레스’는 계속 진행형이 될 전망이다.

◆24시간 증시 중독증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에 다니는 김모(34) 과장은 하루 종일 글로벌 증시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증시 중독증’에 걸려 있다. 작년 12월 초 모 증권사 직원에게 들은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바닥을 찍고 있다”는 말에 솔깃했던 게 발단이 됐다.

당시 남들의 ‘펀드 대박’ 소식에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은 그로선 ‘바로 이때’란 생각에, 모야든 결혼자금에다 은행 대출까지 끼고 전 재산보다 많은 1억5000만원을 중국 펀드 등 5개 펀드 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수익은커녕 원금의 60%를 날린 지금 그는 우울증 비슷한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김씨의 하루 일상은 24시간 내내 이어지는 글로벌 증시 개장 일정에 맞춰 돌아간다. 퇴근 후 새벽 1시까지 뉴

욕 증시 상황을 지켜보다가 잠이 끝나는 새벽 5시엔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 그는 “뉴욕 증시가 상승했으면 머리가 확 맑아지고, 떨어졌으면 몸이 찬글만 근 늘어진다”고 말했다.

오전 8시쯤 출근해서 일정도 끝로벌 증시 시간표에 맞춰져 있다. 우선 국내 증시가 개장하기 전까지 미국 나스닥

오전 20%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가 연계증권(EIS) 펀드에 2억원을 투자했던 회사원 남모씨(39), 지난 8일 원금 보장이 무너져 원금 중 1억원을 날리면서 신문을 봐도 주식 소식에는 아예 눈과 귀를 막아버린다.

올하반기 중세까지 보였다. 펀드 가입 당시 “전쟁만 나지 않으면 연간 20% 수익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큰소리치다가 지금은 유구무언(有口無言)이라는 증권사 직원만 생각하면 더더욱 울

120만원만 돌려받는 것은 더 못하겠고 억울해서 잠도 못 잔다”고 말했다.

재테크 포럼인 ‘모네타’ 같은 각종 인터넷 펀드 카페에는 “휴대폰 문자로 날아온 펀드 손실률이 50% 이하, 어찌 하오리까” “펀드통보다 무서운, 벼락이 무료인 펀드통” 등의 글들이 도배되고 있다. 또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손실내역을 앓다뿔 공개하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박봉에 2000만원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한 방에 날렸

한 묘약은 없다. 특히 투자가이드 차원은 더더욱 없다. 삼성증권 김휘곤 연구원은 “1~2년 투자한 사람들의 경우 여기서 포기하면 고점(高點)에 사서 저점(低點)에 매도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인열 기자 yiyu@chosun.com

최형석 기자 cogito@chosun.com

▶B2면에 계속

24시간 단말기 체크族

아침이 두렵다族

화병에 불면증族

새벽~한밤까지 세계증시 보며 울고 웃고

미 증시 폭락하면 어찌나… 온종일 멍해

“20% 보장, 직원 말 믿었는데… 억울하다”

해법은 TV·인터넷 끄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선물지수를 체크한 뒤, 중국 상하이 증시 확인(오전 10시 30분 개장)→홍콩 증시 확인(오전 11시 개장)→인도 증시 확인(오후 1시30분 개장)→유럽 증시 확인(오후 5시 개장)→미국 시장 확인(저녁 10시 30분 개장) 등으로 숨가쁘게 이어진다.

그는 “아예 안 보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도 해봤지만 최근 들어 각국의 증시가 워낙 요동치고 있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불면증, 울화병…

지난 7월 말 홍콩 H주 주가지수가 향후 1년 동안 40% 이상 폭락하지 않

화풍이 치민다. 그는 “내년 7월 팔까지 주가가 다시 급등해야 원금이라도 채긴다”면서 “기도까지 하면서 마음을 다스린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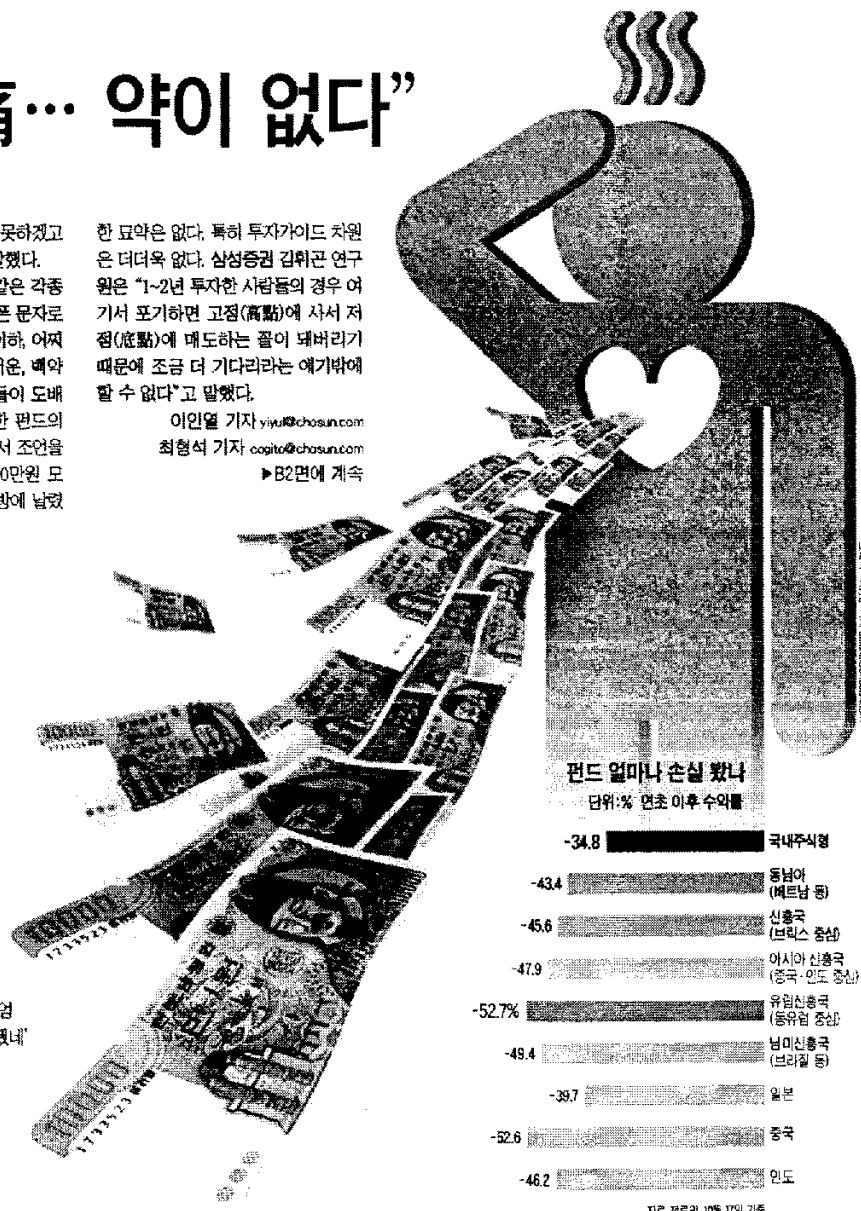
불면증에 시달리는 투자자들도 쏟아진다.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직전 10월 중국식 펀드에 1000만원을 넣은 박모(여·26)씨는 은행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았다. 1년 계약이 끝나 자동환매되는데 120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여외(域外)펀드라서 환율 급등으로 인해 계약을 연장하려면 380만원을 더 넣으라고 했다. 박씨는 “수중에 380만원은 없고, 그렇다고

습니다” 등의 신세타령이 줄을 잇는다.

주부 김모씨는 “교육비 등을 위해 투자한 어린이 펀드 때문에 요즘 어린이 팔까지 TV를 보다가 ‘엄마, 펀드 수익률 또 엉망이 났네’라고 말을 거를 정도”라며 “펀드가 온 가족에게 고통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TV를 끄고 평정을

찾아라
‘펀드 스트레스’에 대해 뽀족



‘펀드 스트레스’ ▶ B1면에서 계속

여의도 성모병원 정신과 채정호 교수는 “IMF 외환위기 때처럼 요즘도 펀드 손실을 호소하며 찾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면서 “펀드로 인한 손실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가족 등 주변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펀드 스트레스는 우리만의 문제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투자 손실로 공황 심리상태를 보이는 아들에게) 주식 시장에 대한 강박관념이 없는 사람을 주로 만나고, 공포감을 전이하는 주변인 TV와 인터넷을 멀리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다.

매일경제

2008년 10월 20일 월요일 A22면

통신주 ETF 수익률 돋보이네

<상장지수펀드>

1개월 성과 주식형펀드 앞질러...거래량 적어 단타는 금물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거래소에서 실시간 매매가 가능해 일반 펀드들과 달리 단기 매매에 나서는 투자자가 늘고 있는 분위기다. 개별 종목에 비해 특정 업종 종목들이나 코스피200에 편입된 우량주들로 구성된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라는 매력도 부각되고 있다. 거래세(0.3%)가 면제되는 것도 또한 개별 종목들과는 차별화되는 점이다.

초보 펀드투자자들에게는 해외 ETF가 관련지역 해외 주식형 펀드보다 낫다는 평가도 있다. 해외 ETF의 경우 대부분 그 지역 우량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위험이 낮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ETF도 일반 펀드처럼 장기 투자하는 상품으로 성급한 단기 매매는 자제하라고 주문한다. 시장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폭락장에 대책 없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량이 많지 않은 ETF들의 경우 단기적으로 치고 나오겠다는 생각에 섰을 때 수확했다가 매도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생긴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1개월 수익률 상위 펀드 중 총발행주식수(17일 기준) 대비 10월 일평균 거래 비중이 높은 ETF는 삼성KODEX 중대형가치(7.76%), 미래에셋 TIGER미디어통신(4.98%), 삼성

KODEX JAPAN(2.84%) 등이 다. 하지만 이것들은 특정일에 펀드나 기관들이 대량으로 사들여 거래량이 많아 보이는 경우이고 실제 일별 거래량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일 거래가 꾸준히 되는 ETF는 국내에서는 삼성 KODEX 200, KOSEF200 등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것들과 삼성그룹주에 투자하는 삼성KODEX삼성그룹, 홍콩에 투자하는 삼성KODEX China H 정도다. 하지만 홍콩 ETF의 경우도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는 아직 10억~2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최근 1개월 수익률로 봤을 때 미래에셋 TIGER미디어통신(-1.18%)이 하락장에서 선방하고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11.04%)보다 10%포인트 정도 앞선다. 16일 현재 SK텔레콤(28.81%), KT(22.7%), KTF(14.75%), LG텔레콤(10.21%) 등 글로벌 침체에 큰 영향이 없는 통신주들로 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삼성KODEX증권도 -4.03%로 양호한 성적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3개월 표준편차(57.03%)는 ETF 중 가장 높은 편이다.

반면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 우려 등으로 크게 흔들린 은행주에 투자하는 삼성KODEX은행은 1개월 만에 24.96%나 떨어졌다.

미래에셋 TIGER BANKS(-23.91%), 삼성KODEX조선(-22.8

ETF 수익률 현황

(단위=%)

구분	펀드	수익률				10월 일평균 거래 비중
		1개월	3개월	1년	3개월	
국내	미래에셋 TIGER미디어통신상장지수	-1.18	-9.03	-12.16	27.35	4.98
	삼성KODEX증권상장지수	-4.03			57.03	0.65
	KOSEF IT ETF	-5.73	-34.15	-31.30	32.75	0.18
	삼성KODEX삼성그룹상장지수	-8.24			34.83	2.13
	우리CS KOSEF블루칩상장지수간접투자	-8.61				0.10
	삼성KODEX자동차상장지수	-8.90	-18.78	-18.54	30.05	0.08
	삼성KODEX중대형가치	-10.19	-25.31	-30.38	28.91	7.76
	KOSEF대형가치	-10.56	-25.85	-29.76	27.45	0.07
	미래에셋 TIGER KRX100상장지수	-11.30	-29.42	-35.78	31.80	0.04
	삼성KODEX반도체상장지수	-11.55	-39.63	-43.67	45.50	0.30
일본	삼성KODEX JAPAN	-3.52	-3.61		28.22	2.84
중국	삼성KODEX China H	-5.09	-17.06	-42.68	49.94	1.60
브라질	미래에셋 TIGER브라질상장지수	-19.05				0.11
중남미	미래에셋 TIGER라틴상장지수	-26.03				0.10
브라질	삼성KODEX Brazil상장지수	-27.27				1.05
국내주식형 유행평균		-11.04	-30.41	-39.72	31.78	
해외주식형 유행평균		-19.59	-38.01	-51.22	5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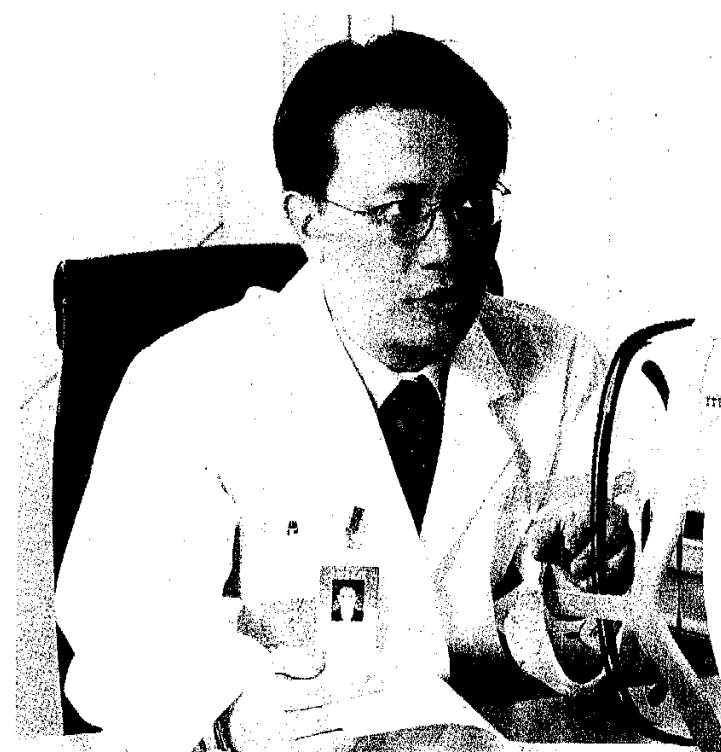
* 17일 기준, 일평균 거래 비중은 10월 일평균 거래량을 17일 현재 총발행주식수로 나눈 것. 표준편차는 수익률 변동성을 의미하며 낮을수록 안정적임. 자료=제로인, 증권선물거래소

6%) 등도 부진한 모습이다.

해외 ETF 가운데는 일본에 투자하는 삼성KODEX JAPAN(-3.52%)이 가장 양호하다. 환헤지를 하지 않아 엔화 강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시장 폭락으로 삼성KODEX Brazil(-27.27%), 미래에셋 TIGER라틴(-26.03%) 등이 폭락했다. 홍콩에 투자하는 삼성KODEX China H는 3개월 표준편차가 49.94%일 정도로 변동성이 높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돼 3개월 변동성이 나오진 않지만 삼성 KODEX Brazil도 최근 10거래일

중 5일이나 일평균 등락률이 8%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출렁거렸다.

ETF (Exchange Traded Fund·상장지수펀드): 특정 추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상품. 개별 종목처럼 종목 코드번호가 부여돼 있고 증권사 HTS(온라인 매매 시스템) 등에서 손쉽게 사고팔 수 있다. NAV(순자산가치)라는 기준가격이 따로 있으며 여기에 추종 지수 실시간 가격과 환율, 보수 등이 반영돼 이를 기준으로 유동성 공급자들이 매매호가를 제시한다. 박준형 기자



"잔치는 끝났다." 펀드 가입자들이 하나같이 내뱉는 탄식이다. 해외 펀드로 원금을 '더블'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먼 옛날 전설처럼 느껴진다. 원금은 고사하고 반토막난 펀드도 부지기수다. 단기간에 펀드 시장이 급팽창하다 보니 투자자는 물론이고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뼈아픈 반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때 일수록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제테크 전문가들의 충고다. 한경 머니팀은 20대부터 50대까지 각 연령대별로 펀드 투자로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모았다. 주요 증권사의 펀드 전문가들이 이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처방전을 제시했다.

결혼자금을 모두 넣은 30대 미혼남 (사례1)

- 펀드 투자: 작년 10월 국내주식형펀드 2000만원.
- 중국펀드 2000만 수익률: 평균 -44%
- 기타상황: 부모와 함께 거주 다른 대출은 없음.
- 전문가 처방: 중국펀드는 보유하고, 국내 주식형펀드 변동성 일부 한배.
- 다음 투자시 거치식보단 적립식펀드 가입을 권유.

주택마련 자금을 투자한 30대 가장 (사례2)

- 펀드투자: 올해초 국내주식형펀드에 4300만원, 브릭스펀드에 2100만원 등 6400만원
- 수익률: 평균 -27%
- 기타 상황: 1억6000만원 전세, 1600만원 저축은행 예금 보유
- 전문가 처방: 기존 펀드에서 일부를 원대해 채권과 채권형 펀드에 투자. 주식형 펀드 비중을 현금성 자산의 30% 수준으로 줄여

◆사례1 결혼자금 펀드에 올렸던 30대 초반

환매는 中펀드보다 국내주식형을 신규 투자할 적립식 가입이 유리

서울 역삼동에 거주하는 임씨(32)는 4년간 직장 생활로 마련한 4000만원가량을 작년 10월 절반씩 국내 주식형 펀드와 중국 펀드에 나눠 넣었다. 이 투자금은 월급을 매달 자동으로 보낸 CMA(종합자산관리계좌)에 있던 돈과 몇 해 전 가입해 수익을 보고 환매한 적립식 펀드에 있던 자금을 합한 것이다. 임씨는 증시가 대세 상승기를 연출하는 동안 적립식 펀드가 거치식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경험하고, 작년 10월에 국내 주식형과 중국 펀드에 모두 거치식으로 넣었다. 임씨의 투자금은 현재 2000만원 남짓 남아 있다. 중국 펀드가 1년 사이 1200만원이나 까먹은 데 따른 것이다. 임씨는 "아직 결혼 계획은 없지만, 미래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고 넣은 목적인데, 그냥 CMA에 넣고 있다가 적립식으로 가입할 걸 그랬다"며 "펀드를 환매하고 싶지만, 손실풀이 너무 커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임씨는 현재 부모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으며, 임씨 명의의 대출은 없는 상태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펀드리치팀장은 우선 우선 중국 펀드의 환매는 늦추라고 조언했다. 김 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악화로 변진다는 우려와 비유통주 해제 물량 부담 등으로 중국 증시 하락폭이 세계 증시보다 컸고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중국 경제의 고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이며, 추가 수준도 앞으로 지금의 하락폭만큼 빠질 가능성이 높아 1년 이상 장기투자 관점으로 중국 펀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계획이 없지만, 향후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면 이미 반토막난 중국 펀드보다는 국내 주식형 펀드를 향후 일부 한배하면서 자금을 모을 것을 권했다. 김 팀장은 "글로벌 증시 위기가 이미 최악의 국면은 지난 것으로 보이는 데다 국내 경기가 4분기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오히려 역발상의 투자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증시 상승장에서는 상승세가 시작될 때 자금을 모두 집어넣는 거치식 펀드가 적립식보다 수익률이 높았지만, 길게 투자한다면 적립식이 유리하다"며 다음 펀드 투자부터는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례2 주택자금 불려려 펀드 투자한 30대 家長

주식형이 80%...자산배분 너무 공격적 채권형 60%로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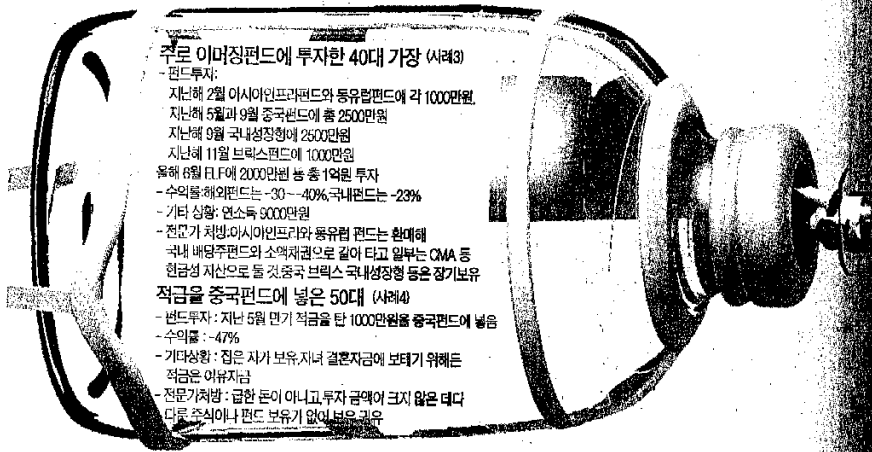
결혼 3년차인 김영수씨(33)는 서울 외곽지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전세금은 1억6000만원. 그는 5년 내 여기에 1억6000만원을 더 보태 집을 사는 게 꿈이다. 그래서 그는 올해 초 국내 대표적인 주식형 펀드에 4300만원, 해외 브릭스 펀드에 2100만원을 거치식으로 투자했다. 상호저축은행에 1700만원이 예금돼 있어 펀드에서 웬만큼 수익 불만 나주면 내집 마련의 꿈은 생각보다 빨리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올 들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김씨의 꿈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그가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은 평균 -27%를 기록하고 있다. 6개월여 만에 1700만원이 고스란히 남아간 셈이다. 김씨는 펀드에서 더 이상 추가 손실을 보면 내집 마련의 꿈은 이루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에 김씨는 동양증권증권 코드센터를 찾았다.

◆정제훈 PB는 김씨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우선 자산배분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호저축은행 1700만원을 제외하면 현금성 자산의 80%가 위험자산인 주식형 펀드에 몰려 있다"며 "현 주식시장의 상황을 감안하면 위험자산 중 상당 부분을 안전자산으로 옮겨 분산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PB는 5년 내 내집 마련이라는 김씨가 세운 재무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자산을 월 8% 정도의 수익률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매달 100만원 정도를 적립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주식형 상품에 집중돼 있는 투자포트폴리오를 국내 채권형과 해외 채권형 상품에 60%, 주식형 상품에 30%를 배분하고 나머지 유동성 자산을 예금이 아닌 수시입출금식 CMA 상품으로 보유해 향후 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했다. 국내 채권형 상품으로는 만기 보유시 투자수익이 확정되는 투자기간 2년가량의 금호타이어 채권을 매수하고, 해외 채권형 상품으로는 향후 시장 상황 변동시 고수익이 가능한 '푸르덴셜스트래티지인컴혼합형 펀드'를 추천했다. 정 PB는 "5년 후 아파트를 장만한다는 재무목표를 세웠다면 목표에 맞게 보유자금을 운용해야 한다"며 "정씨의 경우 자산이 세운 재무목표와 투자성향이 다르게 나타난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최악의 수익률로부터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과 2년 수익률

지역	지수	사건	기간	최악의 6개월 수익률	손실 회복에 걸린 시간	2년 수익률 (최악의 6개월 포함)
한국	KOSPI	IMF	97.7~97.12	-49.52%	16개월	18.5%
미국	S&P500	오일쇼크	74.4~74.9	-32.39%	9개월	9.4%
인도	SENSEX	시장조정	82.10~93.3	-30.82%	9개월	29.9%
글로벌	MSCI AC World	회계부정	02.4~02.9	-26.35%	15개월	6.7%



◆사례3: 이머징 상품 위주로 투자한 40대 가장

신흥시장에 '물뽕' 해외펀드는 위험 배당주펀드·소액채권으로 갈아타라

대기업 부장 양윤식씨(46)는 요즘 좌불안석이다. 지난해 투자했던 펀드들이 최근 줄줄이 손실을 내고 있어서다. 양 부장은 지난해 초부터 가을까지 거처식으로 5개의 해외 주식형 펀드에 차례대로 가입했다. 먼저 지난해 2월 아시아 인프라펀드와 동유럽 펀드에 각각 1000만원 투자했다. 5월에는 중국 펀드에 1500만원을 넣었다. 9월에는 다른 운용사의 중국 상품에도 1000만원을 투자했다. 11월에는 브릭스 펀드를 1000만원이치 추가했다. 그나마 지난해 9월 2500만원을 투자했던 국내 성장형 펀드가 자신의 상품 중 손실률이 가장 적은 편이다. 양씨는 올 들어 해외 펀드가 손실을 입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수기연계펀드(ELF)에 추가 투자했다. 하지만 ELF마저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하자 양씨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됐다. 투자 원금 1억원은 현재 640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고민 끝에 그는 하나대투증권의 웰스케어센터를 찾았다.

▶박경희 하나대투증권 차장(펀드마스터)은 "해외 펀드가 신흥시장 위주라면 짜여진 것은 위험이 너무 크다"며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을 감안하면 다소 보수적인 포트폴리오가 낫다"고 지적했다. 양 부장이 나름대로 분산투자를 했지만 아시아 중국 동유럽 등 이머징 상품으로만 구성돼 분산 효과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박 차장은 먼저 중복되는 중국 펀드는 하나로 정리할 것을 권했다. 또 큰 손실을 입고 있는 동유럽 펀드와 아시아 인프라펀드도 과감하게 순질매하라고 조언했다. 박 차장은 "러시아 증시는 은행간 신용이 회복되기까지는 의미있는 반등이 나오기 어려워 보이고 아시아 인프라펀드 역시 원금 회복이 쉽지 않아 이번 기회에 환매하라"고 권유했다. 대신 환매 자금으로 국내 상품 중 배당주펀드와 소액 채권을 추천했다. 배당주펀드는 해외 이머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연발 배당수익률이 기대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소액 채권은 신용등급과 수익률을 고려해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것을 고르도록 했다. 또 자산의 20% 정도는 CMA에 넣어두고 내기자금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기존 펀드 중 브릭스, 중국, 국내 성장형, ELF 등은 그대로 보유하라는 처방이 내려졌다. 투자기간을 장기로 잡을 경우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사례4: 중국펀드 막자 탄 50대 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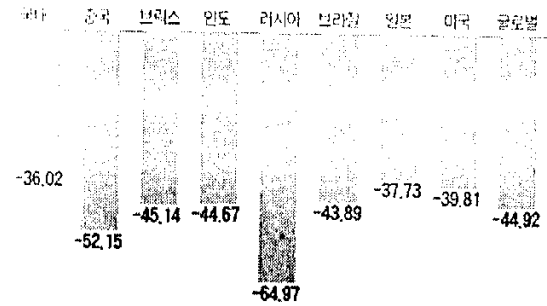
편입비중 적어 기다리는것도 방법 中펀드는 4~5년 더 두고봐도 될듯

부산의 한모 주부(54)는 올해 5월 인근 은행을 찾았다가 은행으로부터 중국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았다. 1년 전 자녀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1000만원짜리 만기가 된 적금을 찾기 위한 자리에서다. 작년 11월 20,000원을 넣어 고점을 찍은 홍콩 H증시가 10,000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4,000선까지 오르는 중이었다. 국내에서 팔고 있는 대다수의 중국 펀드는 홍콩 H증시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한다. 한씨는 중국 증시가 하락세에 있다는 뉴스를 신문에서 본 터여서 중국 펀드 가입을 망설였지만, 자녀 결혼이 1년 정도 남아 있는 데다 "지금 가입해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 증시가 다시 선전하며 단기간 15%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은행 직원의 설명에 귀가 솔깃해 만기가 돌아온 정기적금을 모두 거처식으로 가입하고 말았다. 이 돈은 현재 500만원 남짓으로 쪼그라들었다. 한씨는 "다시는 은행 직원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펀드를 어쩌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기다리고 있다.

▶이상전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이사는 이 같은 사례가 많다고 했다. 글로벌 증시가 오른 작년년부터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보다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물지마 펀드 가입' 사례도 빈번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펀드는 올림픽 기대감이 높아 한씨처럼 몽땅돈을 거처식으로 가입한 투자자들이 많았다. 이 이사는 그러나 한씨에게 "환매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권했다. 중국 증시가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환매로 손실을 확정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한씨의 경우 펀드에 들어간 자금이 많은 돈이 아닌 데다 다른 펀드 편입 비중도 적기 때문에 좀 더 기회를 보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역사상 어떠한 금융위기도 1929년 이후 4년간을 제외하고 3년 이상 지속된 예는 없다"며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은 과거 우리의 경험으로 비추면 4~5년 단위로 장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시간축을 넓게 확보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필요한 결혼 자금은 펀드를 환매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융통해서 해결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또 "1~2년 내 용처가 있는 돈은 기금적 펀드에 투자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김태원/박해영/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주요 주식형 펀드 연초이후 수익률 비교 (단위: %)



환매의 기술

목표수익률 도달땐 일부 환매 주가 하락시 '실탄'으로 써라

펀드 전문가들은 펀드 환매에도 기술이 있다고 지적한다. 펀드 손실이 많아졌다고 무조건 환매하거나, 이익이 났다고 환매를 하면 환매수수료와 세금(해외펀드의 경우)이 부과돼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을 정하고 펀드 환매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컨대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일부 환매해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증시가 하락했을 때 펀드에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놓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 펀드에 가입했다면 비슷한 펀드군을 먼저 환매하는 것도 방법이다. 프랑스, 러시아, 브라질, 남미, 유럽, 미주, 중국펀드 등이 비슷한 펀드로 분류될 수 있다. 가입시점에 신흥국가의 경제가 좋아보여서 동시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최근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하는 경우라면 앞의 펀드들은 비슷한 하락률을 보이기 때문이다.

기계적인 환매를 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다. 이상건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이사는 "2000만원을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과 펀드에 절반씩 투자했다면 증시가 급등하거나 급락해 이 비율이 깨질 때마다 자금을 옮기면서 비중을 맞추는 방식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시장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국내 펀드 환매시에는 가입 펀드의 환매수수료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선취수수료를 내는 펀드(클래스A)가 아닐 경우 환매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30일과 90일 미만 중 어느 쪽인지, 이익금의 30~90%인지가 펀드마다 다르다. 또 90일 미만에 환매하면 환매수수료를 내야 하는 적립식펀드의 경우 가입 후 9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최근 3개월 납입분에 대한 수익도 환매수수료로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해외 펀드는 환매를 해도 환매 대금이 국내 펀드보다 늦게 들어온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대부분 해외 펀드는 환매 후 대금 지급까지 8~9일이 걸린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15일 이내(국내 펀드)에만 환매대금을 주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래에셋 브라질 펀드의 경우 환매 대금이 환매 당일을 포함해 8영업일 이후 지급된다. 중국 펀드는 6영업일 뒤다. 또 PCA나 푸르덴셜의 중국 본토 펀드와 같이 환매 날짜와 상관없이 매달 25일에만 환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펀드는 오후 3시 이전에 환매해도 종가 적용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 '미래에셋차이나오피니언'은 월요일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수요일 아침 기준(화요일 종가)이 적용된다. 브라질 등 아시아권이 아닌 지역들은 기준이 적용과 환매금 지급일자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김재우 기자 hu@hankyung.com

좋은펀드 고르는 법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 줘야 운용사 간판급 펀드 성과 좋아

'펀드 성악설'이 퍼지고 있다. 펀드 가입으로 돈을 벌기는커녕 코피가 터진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위기에 서 다시 부각되는 게 '투자의 기본'이다. 다시금 펀드 투자의 기본을 되새겨보자.

전문가들은 우선 당기에 좋은 성적을 낸 펀드보다는 장기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낸 펀드를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1~6개월 단기 수익률은 펀드를 평가하는 데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 상승장 또는 하락장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결과이고 우연적인 요소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년여 동안 꾸준한 성과를 낸 펀드라면 얘기가 다르다.

가급적이면 자산운용사의 대표 펀드를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자산운용사들은 투자자에게 자산들의 운용 능력을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해 저마다 대표 펀드를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디스커버리', '인디펜던스', 한국투자신운용의 '삼성그룹주펀드', KTB자산운용의 'KTB마켓스타', 한국밸류자산운용의 '한국밸류10년투자주식', 신영투자신운용의 '신영마라톤주식'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펀드는 해당 자산운용사의 대표 펀드매니저가 맡아 운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펀드가 낫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파생상품 펀드처럼 수익구조가 복잡한 펀드는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알고 손실을 보는 것과 모르고 손실을 보는 것은 나중에 대처 방법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수수료 및 총비용이 저렴한 펀드가 좋다. 요즘은 같은 펀드라도 수수료 부과 방식에 따라 다양한 클래스로 판매된다. 1년 6개월 이상 투자를 한다면 선취수수료가 없지만 판매보수를 받는 C형보다는 선취수수료를 받지만 판매보수를 받지 않는 A형이 낫다. 또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E형은 판매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고려해볼 만하다. 이와 함께 잦은 매매로 총비용이 높은 펀드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운용사를 보고 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펀드 운용은 판매사가 아니라 자산운용사가 맡는다. 따라서 펀드 수익률은 자산운용사의 운용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자산운용사가 얼마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펀드매니저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투자철학을 갖고 있는지는 펀드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병훈 대우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펀드 투자자라면 어떤 펀드가 좋은 펀드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본 후 가입을 해야 한다"며 "좋은 펀드를 골라 적립식으로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펀드 투자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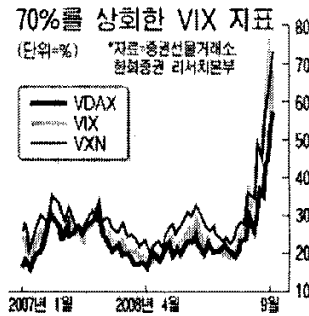
김태원 기자 twkim@hankyung.com

한국 옵션변동성 사상최고

수급이 취약한 가운데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 증시는 장중 하락폭이 100포인트가 넘는 날이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16일엔 지수선물조차 하한가로 마감하는 이변도 발생했다.

미국에서 '공포지수'로도 통하는 시카고옵션거래소변동지수(VIX)도 16일 80%를 넘어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는 등 불과 두달 만에 변동성이 무려 2~3배나 급등했다. 한국 증시에서도 옵션 변동성이 무려 80%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미 지난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줄줄이 하한가로 직행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칫 함부로 뛰어들었다가는 짧은 시간에 큰 손실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호상 한화증권 연구원은 "변동성이 과도하게 높지만 헛사리 진정되지도 않기 때문에 당분간

증시는 높은 변동성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변동성이 낮아지더라도 40% 초반에서 안정이 예상되는데 그 수준도 작년 여름 고점 수준"이라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수급까지 악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이기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외국인이 지난주 사흘 동안 1조 5000억원 매도 우위를 보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주식을 처분하고 있는 데다 기관 매수세는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식형 펀드의 설정 잔액이 2개월째 순유출되고 있어 투신권 매수세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한나 기자

외국인 한국 채권도 팔아치운다

이달 1조3천억 순매도...아시아 투자금 회수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코리아 엑소더스(대탈출)'가 날이 갈수록 가속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매도 공세가 주식에 이어 채권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우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 총 47조6316억원(10월 16일 기준)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순매도액(34조8276억원)보다 12조8040억원 많은 수준이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국인은 총 1조317억원어치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8, 9월까지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던 외국인들은 10월 이후 매도 우위 매매 패턴을 유지하며 11거래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순매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매도세는 다른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비교해 그 규모가 압도적이다. 아시아 신흥국가 가운데 자본시장 성숙도가 높은 만큼 증시 유동성도 뛰어나 매도가 용이하다는 점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에 영향을 줬다. 아시아 주요 신흥국 증시가운데 한국 순매도액은 대만이나 인도 태국 등을 압도한다.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은 이 같은 매도세 영향으로 28.0%로 낮아졌다.

지난해 말 외국인 비중 30.9%에 비해 2%포인트가량 낮아졌다.

이 같은 외국인 매도세에 대해 성진경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무차별 매도 공세 근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염려가 있다"면서 "국내 철강 조선 해운 건설 등이 하한가로 마감한 게 증거"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 증시의 잠재적 위험요인들도 외국인 매도세를 부추기고 있는 요인으로 평가됐다. 한국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금융주가 폭락했기 때문이다. 한편 외국인의 채권 매도는 금융위기로 인한 유동성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화 기자

외국계證 잇단 한국투자 축소 의견

외국계 유수 증권사들이 한국 증시 투자 비중 축소를 잇달아 권고하고 나섰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지난 17일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 유지(Equal Weight)'에서 '비중 축소(Under Weight)'로 하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 증시의 배당 수익률이 2.3%로 7.2%인 대만에 비해 낮고 수급도 좋지 않다. 한국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취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도 이에 앞서 국내 기업들의 내년 이익 성장 전망이 불투명하고 금융사들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Over Weight)'에서 '시장 수익률(Market Weight)'로 낮췄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증시의 내년 주당순이익(EPS)이 15% 증가할 것이라는 컨센서스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은행들 이익이 나빠질 것으

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UBS는 지난달 한국의 부자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낮췄다. 이들 증권사는 은행업종의 취약성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경제의 악영향을 염려했다.

국내 기업에 대한 '매도'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씨티그룹은 LG화학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매도'로 낮췄고, UBS는 기아차, 골드만삭스는 금호

다이어 신세계에 대해 각각 '매도'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금융,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등 은행권에 대한 '매도' 의견도 지난달부터 줄을 잇고 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3대 국가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현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나 금융업계의 위험에 대한 경계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전날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2'.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하며 "한국 정부는 세계 금융시장 위기에 맞서 취약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한국 경제는 단발성 위험에 민감하다"고 분석했다. 이소아 기자

한국경제

2008년 10월 20일 월요일 A27면

개인 저가매수 확대 '관찰나'

외국인·기관 매도종목 '사자'..하락장서 손실증가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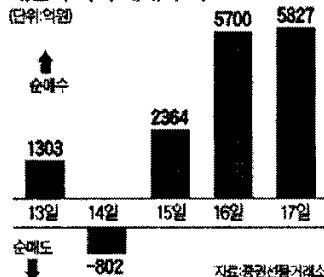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 급락을 틈타 주식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들이 주가 변동성이 높아진 점을 이용해 단기 수익을 노리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개인들이 매입한 일부 주식은 시장보다 더 떨어진 상태다.

19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개인들은 이달 들어 총 2조8388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3조2611억원을 순매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1500선 아래로 밀려난 지난달 26일 이후로도 외국인은 3조2933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았던 반면 개인은 오히려 3조5151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들은 주로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대림산업 GS건설 STX팬오션 등 대표적인 낙폭 과대주들을 주워담고 있다. KT와 SK텔레콤 KT&G LG텔레콤 등 내수 방어주와 LG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등 정보기술(IT)

개인 투자자 매매 추이



주들은 오히려 순매도했다. 역시 IT와 자동차 금융 내수주 등을 순매수하고 있는 외국인 및 기관과는 반대되는 행보다.

이 같은 매매 전략으로 개인들은 이미 추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6일 이후 개인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의 주가는 평균 36.85% 급락했다. 외국인(-15.27%)과 기관(-11.05%)의 수익률은 물론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하락률인 21.37%보다 훨씬 못한 성적이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상위 20개 종목의 주가는 38%, 26% 떨어졌지만 개인이 순매도한 종목들의 평균 하락률은

6.6%에 불과했다.

결국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을 사들여 손실폭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성봉 삼성증권 연구원은 "개인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낮은 가격에 미리 매수 주문을 내놓은 경향이 있다"며 "이는 하락장에서 수익은 줄고 손실은 커지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상일 한화증권 연구원은 "중·소형주는 물론 대형주들의 주가도 크게 낮아진 상태여서 개인들이 반등을 노린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 연구원은 "지금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홍만 대신증권 마포지점장은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 중 일부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추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면서 "아직은 대부분 싼 값에 사서 반등하면 파는 박스권 매매에 집중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경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

공매도 다시 크게 늘었다

ELS헤지목적 물량은 감독당국서 예외 허용
급락장 우량주 물량 쏟아져 주가하락 키워

증시에서 공매도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이달부터 공매도가 금지됐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공매도가 하락장세를 타고 크게 늘어 가뜩이나 어려운 수급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따르면 코스피지수가 126.50포인트 빠지며 역사상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던 지난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만 894억원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이는 공매도가 금지된 이달 들어 하루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로 공매도가 한창 기승을 부렸던 지난달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다.

특히 공매도는 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많아져 하락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코스피지수가 2.73% 떨어진 지난 주말에는 404억원가량의 공매도가 나왔고 4.13% 내린 10일과 5.81% 급락한 8일에도 각각 519억원과 333억원의 공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졌다. 증시가 6.14% 급등한 14일 공매도 물량(33억

원)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규모다. 이같이 공매도 물량이 급증하는 것은 외국계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을 운용하면서 헤지를 위해 공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통상 ELS는 기초자산인 우량주나 코스피200지수가 일정 부분까지 하락해도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해주는데, 운용사 입장에선 주가가 하락해도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ELS의 기초자산이 되고 있는 일부 우량주는 공매도가 집중되며 주가 낙폭이 시장 평균 하락폭을 넘어서고 있다. 16일에만 25만여주(160억원)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진 현대차는 가격제한폭에 가까운 14.76%나 급락했다. 9·11 테러 다음날인 2001년 9월12일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김세중 신영증권 투자전략부장은 “최

공매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장외 거래나, 매매 상대방이 정해진 거래 통 주식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주가 연계증권(ELS)을 운용하는 외국계 증권사가 수익률 보장을 위해 헤지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주식워런트증권(Warrant)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공매도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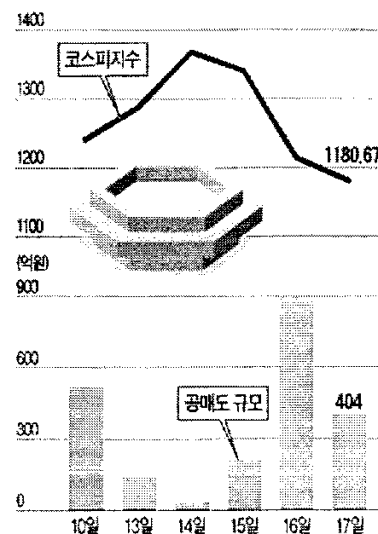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근 같이 수급 사정이 망가진 상황에서 공매도 물량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받아줄 투자자가 없어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다”며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우량주의 주가 하락은 다시 증시 전체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ELS 운용을 맡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가 발행사인 국내 증권사와의 계약 시 공매도 헤지를 못하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ELS 헤지용 공매도를 금지하면 ELS 운용에 따른 손실을 국내 증권사가 모두 떠안게 돼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공매도 규모와 코스피지수 추이



용어풀이

◆공매도=주가 하락을 예상해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파는 투자방법이다. 먼저 주식을 빌려 판 다음에 시장에서 싼 값에 주식을 되사서(쇼트커버링) 값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은 공매도가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고 판단, 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매도가 이달부터 금지됐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 입조심!

우울한 증시에 부정적 멘트 쏟아내면
투자심리만 악화-증권사 '무언의 지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입조심 경계령'이 떨어졌다. 연일 주가가 빠져 투자심리가 꺾여 불자 증권사들이 가급적 부정적인 전망과 분석을 자제토록 입단 속에 나선 것이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인 A사는 리서치센터에 공식적인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이 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증시의 주요 악재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해석과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부 회의에서조차 그런 말은 알아서 삼가고 있다"며 "특히 외부 사람에게는 더 입조심하라는 '무언의 요구'를 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증권사들은 특히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대한 코멘트는 절대 금기시하는 분위기다. 증시가 전저점을 깨고 주저앉으면서 공포감이 커져 근거 없는 루머에도 투자자들이 크게 휘둘리고 있는 만큼 자사 애널리스트가 그런 루

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데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른 증권사의 증권 애널리스트는 "자금 여력이 충분한 기업도 요즘처럼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유동성 위기 소문이 나돌면 돈 값이라는 독촉과 대출 기피가 겹쳐 흔들릴 수 있다"며 "애널리스트들 사이에 신중하게 대처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

증권사株 반토막... '우리사주' 직원들 공포

지난해 증시 상승기 때 우리사주를 받은 증권사 임직원들이 최근 증시 급락으로 낙담하고 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메리츠, 현대, 키움, 동부 등 여러 증권사는 내년 2월에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증자분량의 10~20%를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배정했다. 그러나 올해 증시 급락으로 증권주가 직격탄을 맞고 폭락하면서 증권사 임직원들의 평가손실이 커졌다. 증권맨들은 지난해에는 우리사주를 받고 좋

아했지만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키움증권 임직원들은 지난해 7월 주당 5만7300원에 우리사주를 받았지만 이 회사 주가는 17일 현재 2만5900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메리츠증권도 지난해 9월 주당 1639원에 우리사주를 배정했지만 17일 종가는 1040원으로 떨어졌다. 한화증권도 7280원에 배정한 주식이 5970원으로 하락했다.

현대증권은 우리사주 가격이 1만 6400원에서 1만300원으로 떨어졌으며 동부증권은 8190원에서 5260원으로 내렸다. 손효림 기자 anyssong@donga.com

오버나이트로 버티던 은행에 달려 수혈

〈하루짜리 차입〉

정부가 빚 보증해줘 해외 차입 쉬워져

원화공급 대책 부실...구체안 마련해야

정부가 19일 내놓은 '외환·금융시장 안정 대책'은 은행들이 겪고 있는 외화·원화 유동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종합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1000억달러 규모의 지급보증을 통해 은행권의 해외 달러 차입의 숨통을 더주고 국내 외환 시장에 300억달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원화 유동성을 높이는 대책도 내놓고 글로벌 금융 위기의 실물경제 전이를 막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종합대책 왜 나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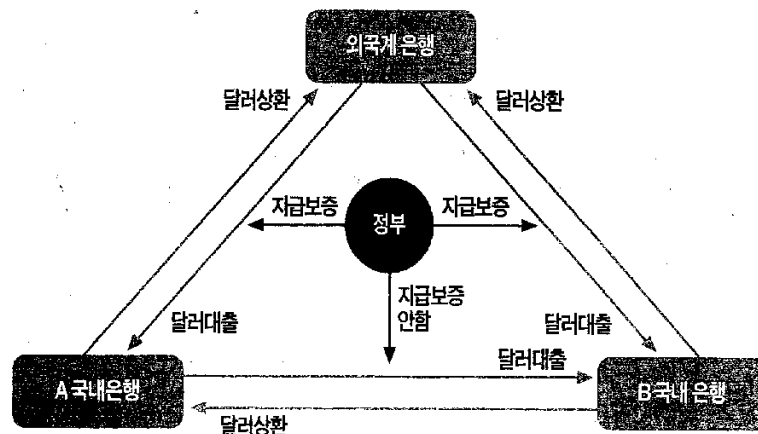
국내 금융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은행들의 달러 차입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지난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국내 은행들은 극심한 달러 가뭄에 시달렸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용위험도를 보여주는 외환평형기금채권 10년물의 가산금리는 작년 말 0.98%포인트에서 이달 14일 3.32%

포인트로 치솟아 장기물 차입이 힘들어졌다. 대다수 은행은 하루짜리 달러 차입인 오버나이트를 통해 근근이 자금을 조달해 왔다. 여기에 이달 들어 호주 등 세계 각국이 은행간 지급보증 조치를 취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은행들의 해외 자금 차입은 더더욱 어려워졌다. 급기야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최근 "한국도 은행간 외화거래 때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가 은행 외화 차입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기로 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은행권의 총체적인 외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사실상 '빚 보증'을 서준으로써 은행들이 해외에서 돈을 쉽게 빌려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정부 차원의 지급보증 계획을 마련, 국회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각 시중은행의 외환채무에 대한 정밀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만기

정부, 은행 외화차입 지급보증 방식



1년 이상과 1년 미만으로 구분해 외화예수금, 외화차입금, 외화사채 발행, 외환스와프 거래 등을 보고받고 재정부와 금융위는 이 자료를 토대로 20일 중 은행별 보증 규모와 대상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달러 가뭄 풀릴까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에 300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달 초 외환스와프 시장에 100억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고, 수출입은행을 통한 은행권의 수출환어음 매매에 50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했지만 여전히 시중의 달러 기근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부 관계자는 "추가로 투입하는 300억달러 중 200억달러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100억달러는 한국은행을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은행들에 직접 공급할 계획"이라며 "투입 시기는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대책이) 외화 유동성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안정될 경우 효과가 비교적 뚜렷이 나타날 듯하다"고 말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

원도 "그동안 외신들이 지적한 문제는 국내 은행들의 외화 차입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것이었다"며 "내년 6월까지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준다면 이런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화 유동성 지원책도 내놓

정부는 은행권의 원화 유동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한국은행을 통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국채 직매입, 통화안정증권 중도 상환 등을 통해 은행들의 원화 유동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외화 유동성에 비해 원화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지만 시중은행들 사이에서는 원화 유동성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외화 유동성과 달리 원화 유동성 지원을 위한 자금 공급 규모와 금리 등 구체적인 방안이 거의 없어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 민간연구기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대책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은행권이 기업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 기업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태형/이태훈 기자 chihiro@hankyung.com

企銀, 12조 中企 추가대출 여력 확보

한은, 금리인하 가능성... 서민 생활 안정 주력

정부는 19일 외환·금융시장 안정 대책에 중소기업 지원방안 및 서민생활 안정 방침도 함께 담았다. 달러 차입 지급 보증 및 원화유동성 공급 확대 등 금융안정 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중소기업이나 고용 위축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에 혜택이 돌아가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으로 기업은행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출자가 마련됐다.

기에는 1조원 현물 출자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로는 중소기업 대출 회수 및 신규 대출 중단이다. 실제 시중은행의 유동성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대출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8월 이후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8월 2조6000억원, 9월 2조9000억원)은 1월부터 7월까지 월 평균 증가액(5조9000억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체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 가운데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상반기 82.9%에서 지난달에는 62.1%까지 감소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 부문에서 국책은행의 역할이 커진 것을 의미한다”며 “기업은행에 현물 출자를 통해 1조원의 증자를 실시하면 자기자본의 12

배 정도를 대출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건전성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자본확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가 현물출자로 증자해 준다는 얘기다. 기업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0.49%(지난 6월 기준)로 국내은행 평균(11.36%)에 못미쳐 대출을 늘리려면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침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내수 경기를 보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9월 신규 취업자 수는 11만명대로 떨어져 고용시장은 이미 한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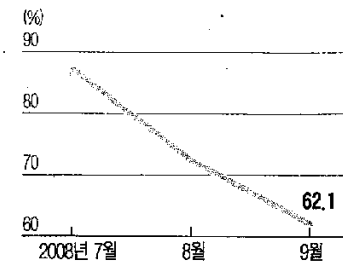
울을 맞고 있다. 수출과 설비 투자, 내수의 둔화세도 뚜렷해졌다.

우선 한은이 내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화정책은 물가가 중요한 기준이지만 경기나 대외균형을 봐가면서 운용하는 것”이라고 말해 물가관리보다 경기하강 방어에 무게중심을 둘 방침임을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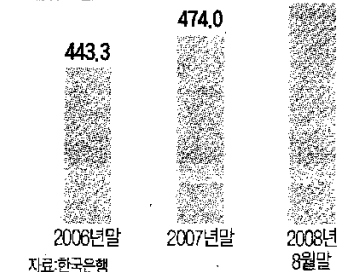
이 총재는 “국제금융시장과 원화 환율이 안정되면 내년에는 물가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중 추가금리 인하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당장은 26조원 규모의 감세안이 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되는 데 주력키로 했다. 더불어 적자재정

중소기업대출 증가액 중
시중은행 비중



가계대출 잔액 추이
(단위:조원)



을 감수하더라도 재정지출을 앞당기고 늘려 실물경제 위축을 최소화하는 데 거시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정부는 273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 중 서민층에 대한 배분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정부 3단계 비상대책중 2.5단계 가동

고강도 금융처방으로 경기침체 예방

10·19대책은 과거 정부대책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고강도 대책이다. 특히 은행권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정부 역할을 크게 강화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모니터링 강화 및 외화유동성 공급 △외화자금 수요 조절 및 공급 확대 △직접 규제

등으로 이뤄진 3단계 비상대책(컨틴전시 플랜)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은행 대외채무를 '직접' 보증하고, 개별 기관별로 300억달러 외화유동성을 '추가 공급'한다는 점에서 10·19대책은 2단계와 3단계 중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은행권에 대규모 자금 공급

장기적인 달러 조달책은 정부가 직접 달러를 조달하거나 은행에 지급보증을 통해 달러 조달을 독려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다.

정부가 직접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외평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 이미 하반기 한 차례 외평채 발행에 실패한 정부는 내년에 외평채 발행한도를 늘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자금시장 분위기는 정부 조달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 따라서 19일 발표한 정책은 지급보증을 통해 국내 은행이 달러를 조달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매듭지어졌다.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각국 정부에서 지급보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금융회사 외화 차입은 실제 막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특히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 은행권 차입을 독려하면 외환보유액을 직접 활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부

분에 대한 부담도 덜하다. 다만 현재로서는 얼마만큼이 지급보증 대상이 될지는 알 수 없다. 내년 상반기까지만 기도래하는 국내 은행 대외채무는 약 8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총 보증 규모를 이보다 큰 1000억 달러로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일까지 각 은행에서 보증 규모 등을 신청받아 향후 정확한 금액을 집계할 계획이다.

◆실물경제로 위기 옮겨놓지 못하게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 환대조건 부채권(RP) 매입, 국채 직매입, 통안증권 중도상환 등을 통해 긴급 외화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금융시장 불안심리가 실물경제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했지만 이후 CD금리와 은행채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는 직접 유동성 지원책뿐. RP를 매입하고 통안증권 등을 환매해주면서 단기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공개시장 조작정책을 써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정부가 경기 침체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중소기업에 살리기 위해 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해 중소기업 대출 여력을 12조원 늘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달 말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4조3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 대출보증을 4조원 증액하기로 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은행권 "가뭄에 단비"

하루짜리 달러 차입에 의존해 근근이 버티던 국내 은행 외화자금 시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주 스왑거래시 경쟁입찰제 도입으로 달러가 절실한 은행이나 신용도가 낮은 은행도 한국은행에서 직접 달러를 조



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데다 정부의 외화차입 보증으로 은행들로서는 든든한 '방패막'이 생긴 셈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은 지급보증을 해주는데 한국만 해주지 않으면 달러가 정부 보증이 있는 곳으로 옮겨갈 염려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이런 염려가 불식돼 동등한 조건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이번주 스왑시장에 30억달러가량을 우선 공급하기로 하면서 은행들은 10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27억달러 규모 외화차입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연말까지 400억달러에 가까운 장단기 외화차입 물량도 수출입은행이나 스왑시장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어서 은행들은 일단 급한 불은 졌다.

한예경·임성현 기자

예금보장 확대·은행 자본확충 시장상황 보가며 추가하기로

정부의 1000억달러 대외 채무보증, 300억달러의 직접 외화유동성 공급 방침이 공개됐다.

“현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최대한 망라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실제 효과에 대한 민간 전망은 엇갈린다. 거론된 조치 가운데 이번 발표에서 빠진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후 추가 대책 가능성은 어떤지 궁금증이 높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이번 대책에 더해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정부 조치는 예금보장 확대, 금융사 자본 확충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이 같은 극약처방을 검토할 정도로 국내 금융시장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일단 결론지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금융사들의 지급 능력이 아직 건전해 정부가 추가 예금보장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카드를 뽑아줄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증시 대책 논의 과정에서 0.3%인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세수 감소폭이 커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거론되는 증시 대책은 현행 15%인 주식 가격제한폭 축소, 매매시간 단축, 주식거

래 일시 정지, 임시휴장 등의 긴급사태 처분권 행사다.

금리 인하와 추가 외화유동성 공급 등도 관심사다. 먼저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이미 보낸 바 있다.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300억달러 외화유동성 지원으로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경우 자의든 타의든 한은이 전면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상당 부분 소진한 탓에 정책의 ‘틈’이 줄어들까닭이다.

외평기금 잔액은 최근 150억달러의 유동성 지원으로 총 550억달러에서 400억달러로 내려앉은 상황이다.

이번에 수출입은행을 통해 200억달러가 지원되면 총규모가 200억달러로 떨어진다. 물론 이 같은 계산은 모든 만기 도래 채권이 다시 만기를 연장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추가 투입되는 200억달러는 1월까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아무래도 이후에는 한은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근 기자

실물경제 대책도 쏟아진다

22일 건설업지원案 윤곽

재정지출 확대 본격추진

이번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별도로 정부는 집체 속도가 예상보다 급격한 실물경제를 고려해 각종 대책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22일에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건설사 신용보강을 골자로 한 건설업 지원방안이 윤곽을 드러낸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책 규모는 5조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건설사 의견과 899개 저축은행 PF현장 전수조사, 1400여 건설사 외부감사 결과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최종적으로 조율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환주택보증을 통한 미분양 아파트 매입, 토지공사를 통한 공공택지 재매입 등이 골자가 될 것”이라며 “미분양펀드 활성화와 건설사 ABS 발행 지원 등도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주 초 대통령 보고와 당

정 협의를 거쳐 건설업 지원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식경제부는 업종별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섰고, 정부 일각에선 조선업종 등 다른 업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에 대비한 정부지출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한국 재정건전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라며 “경기가 어렵다면 정부지출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 예산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지출 확대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정부가 정부지출 확대에 나선다면 분야는 주로 경기 침체에 취약한 서민층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10조원대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김태근 기자

10·19금융대책 은행별 효과 제각각

은행마다 아킬레스건 서로 다른탓...기업銀만 “대형호재” 반색

‘내외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은행들이 정부의 전방위 금융시장 안정대책으로 안팎의 위기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내 은행들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 확산되면서 국내외 자금시장 경색으로 단기적으로 원화 및 달러 자금난에 빠졌다.

이로 인해 무디스, S&P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국내 금융회사에 대해 잇따라 부정적 전망을 밝히는가 하면 외신에서 국내은행의 부실가능성을 집중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번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증과 한국은행을 통한 원화 유동성 공급 등을 취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유동성 위기설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인 은행권 ‘호재’에도 불구하고 위기설의 단초가 됐던 은행별 ‘아킬레스건’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은행별 ‘아킬레스건’ 해소되나

8월 말 현재 신한은행은 씨비은행, 외환은행에 이어 가장 큰 규모의 키코 계약을 맺고 있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8월 말 현재 신한은행은 117개 업체와 16억달러에 달하는 키코 계약을 맺고 있는데 원화값이 추가로 폭락해 업체들이 파산할 경우 막대한 평가손실을 떠안는 수밖에 없다.

신한금융자주는 규모상 신한증권에 비해 리먼브러더스 채권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리스크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주사 전환에 따른 자사주 매입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12.45%였던 국민은행의 BIS비율은 2조원 이상의 자금이 지주사 전환에 투입되면서 3분기엔 10%선으로 추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이 때문에 BIS비율 등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이 이 같은 재무상황 때문에 외환은행 인수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은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외면하는데도 중기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최근 국내외 자금시장 경색으로 중기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은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왔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1조원을 현금 출자함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여력이 커진 것은 물론이고 BIS비율이나 연체율 개선 등 재무구조도 상당히 호전돼 줄지에 우는 입장에서 웃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우리은행은 CDO(부채담보부증권) 부실 등 연초부터 여러 압초에 부딪혀왔으며 연체율 상승과 실적악화로 올해 경영계획이행약정(MOU) 달성이 어려울 정도였다. 특히 외화조달 가산금리(CDS프리미엄)이 한때 600bp를 넘어서는 등 외화자금난에도 시달려왔다.

5대 은행 최대 현안

은행	현안
KB 국민은행	지주사 매입에 따른 BIS비율 하락
신한은행	2만 채권투자 및 키코손실
하나은행	파생상품 계약 손실 우려
우리은행	CDO(부채담보부증권) 투자 손실 확대
IBK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상승

우리은행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외화자금난에 다소 숨통이 트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피봇’ 등 통화옵션 계약을 맺은 태산L CD가 파산하면서 줄지에 3000억원에 달하는 평가손실을 떠안은 상황에 처해있다. 하지만 채권은행들이 공동관리에 나서며 업체가 파산위기에서 벗어난 데다 이번 조치로 달러 대비 원화값 하락추세가 더뎠을 것으로 보여 손실이 급속히 확대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의 고위관계자는 “자금위기설 때문에 10억달러 정도의 여유자금은 항상 갖고 있는 보수적인 자금운용을 해왔다”면서 “자금운용의 효율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지만 대외신인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정부대책으로 원화값이 상승추세로 반전되지 않더라

도 추가손실에 대한 우려가 축소됨에 따라 자금악화설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중은행 원화유동성 해소되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의 가파른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가능성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또 다른 은행 건전성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신용경색 현상이 국내 은행을 강타하면서 채권시장에서 양도성 예금증서(CD)와 은행채는 유통이 거의 안되는 상황. 그만큼 은행들이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

고유지책으로 고금리 특판예금 등을 통해 시중자금을 흡수하고 있지만 결국 건전성 지표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돈이 궁해진 은행들은 이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크게 줄이고 있다. 지난 1~7월 평균 5조9000억원에 달했던 은행권의 중기대출은 9월 2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 7월 87.4%에 달했던 시중은행의 중기대출 비중은 9월 말 62.1%까지 떨어졌다. 반면 중기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0%에서 9월 말 1.7%(추정치)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임성현 기자

대 일 정 제

정부 11년 만에 지급보증 ... 사고친 은행 또 국민이 뒤치다꺼리

외환위기 뒤 해외서 싸게 돈 빌려 대출장사
매년 수조원 이익 내며 리스크 관리는 뒷전
“선진국처럼 도덕적 해이 책임 물어야” 지적

뉴스 분석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은행이 해외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들먹이는 돈은 결국 국민 부담이다. 사고는 은행이 쳤는데 뒤치다꺼리는 또 국민이 해야 할 판이다.

이미 시장에선 외환보유액이 계속 축나고 있다. 이달 정부가 직접 공급하겠다고 밝힌 달러만 450억 달러(스와프 시장 200억 달러+수출입은행 통한 지원 250억 달러)다. 만약 정부가 지급보증한 은행 대외채무 1000억 달러까지 도와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면 외환보유액을 1450억 달러나 쓰게 된다. 9월 말 외환보유액(239억 달러)의 60%다.

이제 파란 외환위기 이후 달라지지 않은 은행권의 경영 형태와 이를 방지한 당국의 감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은 은행들의 독무대였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얻어 쓴 덕분에 재무구조가 크게 좋아졌다. 은행들은 한 해 수조원씩 이익을 낼 정도로 호시절을 누렸다. 하지만 영업한다는 말까지 없었다. 여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것)에 기대오다 마진이 줄자 외형경쟁에 몰두했다. 리스크 관리는 뒷전이었다. 외화 유동성 문제가 생긴 것도 이 때문이다. 은행들은 2000년대 들어 해외에서 저리로 단기 차입을 늘렸다. 파생상품 시장 등에서 장기로 운용하기 위해서였다.

단기로 조달해 장기로 운용하는 이른바 미스매치(간지 불일치) 씨앗을 뿌린 것이다. 이 바람에 2006년에는 전체 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외환위기 때는 36.6%였다가

막판에 60% 가까이 급상승했다. 단기 외채 급증과 미스매치가 외환위기의 불씨가 됐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은행권은 외화자산이 많다고 주장해 왔지만 막상 해외에서 자금을 거둬가자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별로 없었다. 외채의 만기 연장이 점점 어려워지자 결국 정부에 손을 벌리고 지급보증을 서달라고 매달렸다.

그러면서도 기업엔 가혹했다. 한화지 상환인 키코(KICO)에 들린 중소기업 증원 은행의 격기 강요를 받은 경우가 상당수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 차입 금리가 올라가자 당장 증수수출기업 무역어음 대입부터 줄였다. 부동산 시장의 버블 조성에도 한몫했다. 2006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가할 때까지 은행들은 필사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렸다.

세계 각국이 은행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금융 지원책과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대한 처벌이 동전의 양면처럼 진행된다. 금융회사 임원진의 보수 제한은 기본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금융위기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것은 아니나 처벌이나 보수제한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지만 공적자금이 한 톨도 들어가지 않은 호주와 같은 국가도 모럴 해저드 차단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상열 기자 isang@joongang.co.kr

주요국 금융위기 대책과
모럴해저드 추궁 상황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한국
대책	9개 은행 부문 국유화에 2500억 달러 투입	은행 국유화에 370억 파운드 지원	은행 간 대출 보증 등 5000억 유로 지원	은행 간 대출 보증에 3200억 유로 지원	금융기관 외화 차입 지급 보증	1000억 달러 규모 외화차입 지급 보증
책임 추궁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보수 제한 추진	-주주 배당금 지급 중단 -고위 경영진 보수 제한	-임원 보수 연간 50만 유로 이하로 제한 -보너스·배당 금지	모든 은행 특별감사 실시	임원진 과도한 보수규정 감독방안 마련 예정	?
지도자 발언	“허술한 금융규제 재검토할 시간 나중에 충분히 있을 것” 	“과도한 위험 투자나 무책임에 인센티브는 있을 수 없다” 	“무책임한 사업 벌인 사람들이 책임지게 될 것” 	“금융위기 책임자 처벌받아야 할 것” 	“금융회사 CEO들이 성과급에 눈이 멀어 공격적 투자 감행” 	“비가 올때 우산 빼앗지 말아야” 

금융업종 임금은 다른 산업 1.6배 월평균 453만원 받아

금융업에 경제가 온통 휘청거리는데도 금융업 종사자의 임금은 공공행진을 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453만2000원으로 전 산업 평균(282만3000원)의 1.6배에 달했다. 금융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데다 외환위기 이후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으로 생산성을 높인 것이 임금 수준에 반영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제조업은 277만2000원, 건설업은 273만1000원, 도·소매업은 288만3000원이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업이 차지한 부가가치의 비중은 7.9%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2005년 기준 부가가치 비중은 7.5%로 일본(6.3%)보다는 높았지만 영국(8.2%)과 미국(7.8%)에 비해서는 낮았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상황 더 나빠지면 지준율·금리 내릴 듯

정부, 추가카드 뭉가 있다

10·19 금융시장 안정 대책은 후속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부도 전부를 치를 때까지 제1, 제2 방어선을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이날 대책에는 빠졌지만 곧이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주로 한국은행의 몫이다. 대표적인 게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와 총액한도대출의 확대. 지급준비율 인하는 예금을 받으면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인 한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금의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 지준율을 낮추면 은행들이 한은에 쌓아야 할 돈이 적어진다. 이는 결국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효과를 낸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을 토대로 한은이 은행들에 한 이자료를 빌려주는 총액한도대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을 통해 기업에 흘러들어가는 돈이 늘어날다.

한은은 지난해 11월에 들어 날선다고 판단해 총액한도대출을 9조5000억원에서 6조5000억원으로 축소했다. 당초 한은은 총액한도대출을 건드려 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위축·긴박하게 돌아가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해지자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예금 보장 확대도 거론 최악 경우 은행 국유화

이와 함께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를 부양하고 기업·은행에 돈을 더 많이 풀아가게 하자는 것이다. 이미 이 상태 한은 총재도 추가 금리인하를 시사했다. 다만 이 같은 대책들은 한은이 그냥 결정해 할 수 있는 힘을 아니다. 한은의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외에 정부는 상황이 더 나빠질 때를 대비해 카드론을 남겨뒀다. 예금 보장 확대와 은행에 대한 직접 출자 등이 이에 속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가운데 예금보장 확대를 한과 실행하게 검토했다. 고위 간부가 구체적인 금액·현상 금융사당 5000만원~1억원)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너무 ‘큰 칼’이어서 지급 뭉가들기엔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유럽의 은행과는 달리 국내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뱅크런(예금인출 사태)의 가능성도 없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미국·유럽 정부처럼 은행 자산을 사들이는 ‘국유화’는 후려 정부의 마지막 카드다. 은행도 도산을 막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외환위기 때 많이 해본 것이다. 지금은 외부 충격으로 돈이 안 돌아 돈자이므로 일단 자금 공급을 늘리는 선에서 버텨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다.

남윤호 기자 ynam@joongang.co.kr



금융기관 잘못은 따져야

신현상 정치경제부

19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정부가 국내 은행이 내년 6월 말까지 들여오는 대외 채무를 총 1000억달러 내에서 3년간 지급보증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금융경쟁안정대책을 내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우선 300억달러 규모의 외화유동성을 은행권에 추가로 공급기로 했다.

이번 은행의 대외부채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은 미국과 유럽 등이 이미 발표한 은행간 채무보증 등에 발을 맞춘 국제적 정책공조인 동시에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정부의 '마지막 카드'인 셈이다.

그동안 논의됐던 은행의 자본확충이나 예금보장 확대 등의 방안은 이번 조치에서 빠졌지만 정부는 "현재로서는 필요치 않은 상황이지만 필요시 적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 은행들의 바람(?)대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조치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위기상황에 직

면하면 정부만 바라본다는 비판을 또 한번 받게 됐다.

사실 은행들은 그동안 수수로 수입 확대를 위해 외화 자산과 부채 간의 만기불일치를 유발했던 외환관련 영업행태를 자행해 왔다. 특히 넘쳐나는 원화 유동성을 기반으로 개인 부동산담보대출과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몰두했던 규모 확장전략 등으로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을 자초했다.

문제는 이 같은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에도 불구하고 '일단 살리고 보자'는 건박함 때문에 제재는 늘 뒷전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정부의 금융감독시스템 탓도 있지만 위기를 초래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향후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위기상황을 조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잘못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lshs@fnnews.com

머니투데이

2008년 10월 20일 월
020면

◆매일경제신문·매일경제TV <매일경제신문> △이사대우 논설실장 김세형 △편집국장 조현재 △뉴스속보국장직대 김종영 △산업부장 겸 지식부장 박재현 △주거국장직대 남종원 △국제부장 조경엽 △경제부장 전병준 △사회부장 윤형식 △증권부장 임규준 △부동산부장 황병현 △증권부장 전호림 △정치부장 손현덕 △논설위원 이동주 △과기부장직대 홍기영 △금융부장직대 서정화 △유통부장직대 이성원 △속보뉴스취재팀장 채경옥 △속보뉴스운영팀장 오홍선 <매일경제TV> △전무이사 윤승진 △상무이사 광고국장 김형복 △보도국장 정성관 △미디어국장 류호길 <매경인터넷> △이사대우 운영결 <AMC> △대표이사 김종훈

▶김상민(하나UBS자산운용 글로벌
별운용팀장)·상돈씨(SK텔레콤 투자
회사관리팀 매니저)부친상=18일 오후
1시 고대안암병원, 발인 22일 오전 5
시, 929-1299

매일경제

2008년 10월 20일 월요일
A01면

韓銀 금리인하 시사

향후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19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평소 한은의 통화정책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후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며 "통화정책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그쪽 방향으로 간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총재는 10월 금통위 결과 기준금리를 인하한 직후 "금리 변동은 한번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결국 금리인하로 방향을 잡은 만큼 향후 통화정책이 이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10월 금통위에서는 통화정책 방향이 그동안 물가안정 위주였으나 향후 성장을 고려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설 등이 나오면서 시중금리 약제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주 세계 7대 중앙은행이 공조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래 각국의 추가 금리인하도 겹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이달 초 기준금리를 종전 2%에서 0.5%포인트 내린 1.5%로 하향조정한 이래 이달 말 추가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예경 기자

금융안정책 신속 과감히 집행해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놴다. 은행의 외화채무에 대해 정부가 3년간 지급 보증하고,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300억 달러를 추가 공급하며 기업은행에 정부 보유 주식 및 채권 1조원을 현물출자해 대출 여력을 확충하는 것 등이 골자(骨子)다. 8년 이상 가입 주식펀드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포함됐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혼란에 빠진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만하다.

이번 대책이 외화 및 원화 유동성 해소, 중기 지원, 증시 안정 등을 위한 종합 처방으로 정책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은행 외화채무의 정부 보증은 달러부족이 시장 불안의 핵심 요인이고, 이미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이 그런 조치에 들어갔음을 감안할 때 국내 은행이 외국금융회사로부터 역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이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 혼란이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본질적으로 이번 위기가 국제 금융시장 경색에서 비롯된데다 실물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 시급한 것은 외화 및 원화 유동성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실행됨으로써 실물경제에의 파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은행이나 기업들의 사정이 당장 급한 실정이고 보면 하루라도 빨리 이들의 숨통을 터줘야 유동성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다시 이런 저런 절차를 이유로 머뭇거리다가는 정책의 약발이 발휘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를 위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의 침체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얼마나 더 지속되느냐에 따라 국내 상황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사태 전개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도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주에 나올 건설업 지원 등 실물경기 대책도 그런 점에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보다 과감하고 충분한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대응책이 효과적인 돌파구(突破口)가 될 수 있다.

한 국 경 제

은행 돌아가게 하고 실물 침체 막아야

정부는 어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들이 내년 6월까지 차입하는 외화에 대해 1000억달러까지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또 300억달러를 추가로 풀어 달러 가뭄을 해소하고, 국제매입을 통해 원화 유동성도 늘려주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장기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증시 안정을 돕는 조치도 나왔다.

주가와 원화값이 폭락하고 은행과 기업들이 달러는 물론 원화 유동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동성 관리를 잘못된 금융회사에 어떤 형태로든 패널티를 줄 필요는 있지만 지금은 개별 금융회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선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부터 회복해야 할 상황이다.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밝혔듯이 선진국들이 은행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을 비롯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만 시간을 끌면 국내 은행들이 역차별 받는 문제도 있다. 국회는 다른 정략적 이슈와 연계하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번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금융과 실물경제가 함께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회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일이다. 정부는 금융시장의 급한 불을 끄는 한편 급격히 위축되는 내수를 살려 금융과 실물의 복합불황을 막아야 한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거듭 시사했듯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 카드를 쓸 필요도 있다. 은행들은 신용등급이 떨어져 자금 조달 길이 막히지 않도록 재무건전성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기업들도 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부실요인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금융위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국제공조에도 반드시 참여해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금융위기 정상회의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한·중·일 통화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협력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유엔 무대에서 공조 방안을 논의하자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제안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자 세계 13대 경제국인 한국이 국제공조 논의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 일 경 제

금감원 간부 10명 올해 퇴직후 금융사行

공직자윤리법 허점 이용...로펌에도 3명 취업

금융감독원의 고위 공직자들이 공직자윤리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퇴직 후 바로 금융회사나 로펌에 취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김동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을 퇴직한 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로 자리를 옮긴 2급 이상 금감원 간부는 10명에 달했다. 이는 직전 2년 동안 15명씩 자리를 옮긴 데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적잖은 수의 금감원 간부가 곧바로 금융회사로 자리를 옮겨 금융감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

원 출신으로 로펌인 김앤장 고문으로 취업한 사람도 올해만 3명 등 지난 3년간 6명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된 기업, 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금감원 간부들은 은행 감독 부서 근무자는 증권사로, 비은행감독 부서 근무자는 은행으로 취업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한 규정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은행감독국에 근무하던 W씨는 S은행 감사로, 은행검사2국에 근무하던 H씨는 K증권 감사로 취업하는

식이다. 아예 퇴직 직전에 인력개발 실이나 소비자보호센터 등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곳으로 보직을 옮겨 경력을 '세탁'한 후 퇴직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금감원에서 은행, 비은행 감독을 총괄했지만 모 금융지주회사가 신설사라는 이유로 퇴직 1년 만에 규제를 피해 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들은 결국 금감원의 인맥을 이용, 로비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을 스카우트하고 있다"며 "퇴직 후 뿐 아니라 재직 중에도 향후 취업을 염두에 두고 친분관계를 맺거나 편의를 봐주는 등 부패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영재 기자/하경환 인턴(한국외대 4학년)

yocool@hankyung.com

머니투데이

2008년 10월 20일 월요일 001면

여의도 금융특화시설 '2배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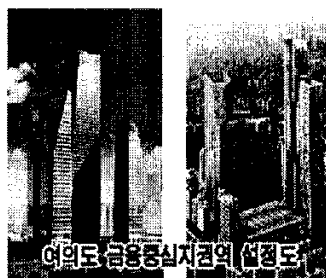
2023년까지... 배후 노후단지 고급주택 재개발

서울시는 여의도 중심업무지구(금융업무 특화지구)로 지정해 2023년까지 업무시설을 지금보다 2.7배 늘리기로 했다. 또 공장·광장이아파트가 있는 배후주거지구를 고층아파트와 타운하우스 등으로 재개발하는 한편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공공용지를 확보, 외국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을 다음달 5일 열리는 시·도 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14일 금융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여의도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증권유관기관이 밀집한 여의도 중심업무지구 28만8044㎡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 고층·고밀의 최고급 오피스(사무용빌딩)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고층·고밀로 개발하면 중심업무지구의 업무시설 면적은 서울국제금융센터(SIFC)와 파크원이 준공되는



2013년에 지금보다 1.8배 넓어지고 2023년에는 2.7배 확대될 것이라고 시는 예상했다.

오피스 3개동과 특급호텔, 쇼핑몰로 구성된 SIFC의 오피스면적은 27만㎡, 오피스 2개동과 호텔 쇼핑센터로 구성된 파크원의 오피스면적은 40만㎡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말까지 지하철 여의도역에서 MBC 앞까지 430m

의 중앙가로를 통합문화공간이 있는 '국제금융디자인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50만9600㎡ 규모의 지원업무지구에는 고급 오피스와 회의시설, 특급호텔을 유치할 예정이다.

개발이 제약된 배후주거지구(65만8118㎡)는 규제를 완화해 국제 수준의 주거환경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 지역에는 공장·광장·대교·삼부아파트 등 지은 지 25년 넘는 노후 아파트단지가 대다수를 이룬다.

시는 주거를특별 특성화 개발을 통해 타운하우스와 고층아파트가 혼재된 도시경관을 유도하고 일부는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원정호 기자 meetho@

'버핏의 힘' 美증시 바닥탈출 불지필까

“공포에 떨때 탐욕 부려야...기다리다간 봄날 지나갈 것”

“경기침체 좀더 지켜보아” 지적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여파로 극심한 혼란을 보이던 뉴욕 증시가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오래만에 4.6% 올라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17일엔 주택 시장과 소비자 심리 등 최악의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워런 버핏 버셔해서웨이 회장의 '주식투자 적기론'에 힘입어 다우지수는 127.04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아직은 투자심리가 취약해 변동성이 큰 불안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버핏 회장은 17일 "미국을 사라.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Buy American.I am)"는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을 부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업률이 높고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단기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되면 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레버리지(차입)가 많거나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지만, 미국의 다수 건전한 기업들의 장기 전망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버핏 회장은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최악의 상황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을 때 주식을 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공황기인 1932년 7월8일 41에 불과하던 다우지수는 1933년 3월까지 30% 상승했다고 소개했다. 그 사이 경제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지만 주가는 올랐다는 것이다. 1980년대 초에도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가 바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로빈(개뿔지빠귀)을 기다리다간 봄날이 지나가 버릴 것(If you wait for the robins, spring will be over)"이라고 했다. 앞으로 10년을 보자면 거의 확실하게 주식이 현금보다 훨씬 큰 폭으로 '아웃퍼폼(초과수익)'할 것이며, "픽(공)이 있던 곳이 아니라 픽이 가

는 곳으로 스케이팅한다"고 말한 위대한 아이스 하키 선수 웨인 그레츠키의 명언을 떠올리라고 덧붙였다.

버핏 회장이 공개적으로 주식 매입을 권고,얼어붙은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이날 다우지수는 부진한 경기지표에도 불구하고 한때 300포인트 급등하기도 했다. 비록 막판 매물 압박으로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들이 버핏 회장의 '주식 투자 적기론'에 반응한 것은 저가 주식 매수 수요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매릴린치의 한 자산운용 담당자는 "거액 자산가 중 주가가 빠질 때마다 주식을 매수하려는 이들이 최근 들어 늘고 있다"며 "낙폭이 커질 때마다 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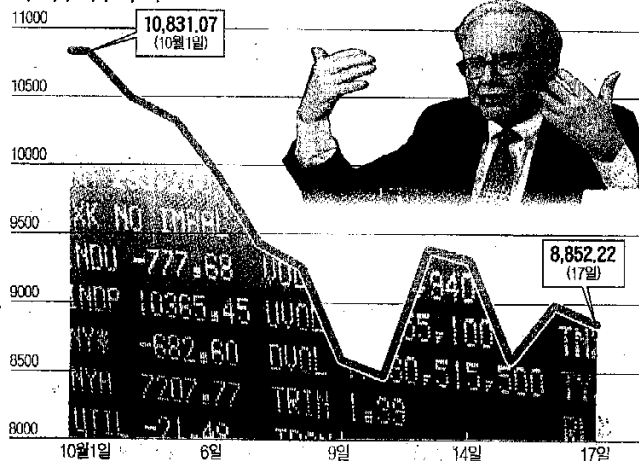
매수세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크지만 단기 자금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점도 증시에는 호재다. 끊기다시피 했던 은행 간 대출이 살아나 이날 하루짜리(오버나이트) 리보(런던은행 간 금리)는 0.27%포인트 하락한 연 1.67%를 기록했다. 인주일 전 하루짜리 리보는 5.09%에 달했다. 아직은 기업과 개인들한테 자금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지만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직접 기업어음(CP) 매입에 나설 경우 기업들의 자금 흐름에도 숨통이 타질 전망이다. 여기에 구글과 일부 제약업체의 실적 호전 등도 장 분위기를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또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에 응하기 위해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 현금화할 수밖에 없었던 헤지펀드들의 매도세도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물론 버핏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시켜 투자자들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찾아주기에는 아직 무리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스티븐 리추이트 미즈호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며 "경기침체는 상상의 나래를 퍼 중단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9월의 미 주택 착공 실적은 전월에 비해 6.3% 급감한 81만7000채로 17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으며,10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는 전월의 70.3에서 57.5로 추락해 월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뉴욕=이원원 특파원 klee@hankyung.com

미 다우지수 추이



美·佛·EU 캠프 데이비드서 공동성명

“금융위기 공동대처”...내달 국제정상회의

이르면 美대선 직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정상회의를 가질 전망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주세 마누엘 바로 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휴양지인 메릴

랜드주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동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 대선(11월4일) 직후 미국에서 첫 번째 국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 주 각국 정상회의 의견을 타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첫 국제 정상회의는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뤄진 진전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개혁 원칙들에 대해 합의점을 마련하고 미래 국제사회의 번영을 보장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금융위기를 겪고 있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 회의가 성공하려면 전세계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지도자들도 이번 회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시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자는 이번 회의와 관련, “부시 대통령이 회의를 주최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주요국 정상회의를 12월 초 유엔본부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반 총장은 이날 캐나다 퀘벡시대를 방문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회동한 뒤 “우리 두 사람은 금융위기 사태를 맞아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위기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 정상회의를 열자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를 12월 초에 국제회의 장소로 가까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도 금융위기 진앙지인 뉴욕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했으며,이 회의에는 선진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워싱턴=김홍원 특파원 comeon@hankyung.com

中 GDP성장률·美 MS 등 주요기업실적 이번주 발표

실물경제 지표따라 증시 출렁일 듯

“이달 말까지 발표되는 국내외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주목하라.”

모두가 글로벌 금융 불안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 얘기했지만 지난주 그런 기대가 맥없이 무너졌다. 예상치를 밑도는 미국 소매판매지수가 발표되면서 코스피가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이제 증시는 실물경제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증시를 뒤흔던 경기 침체 쓰나미는 언제쯤 멈출까. 단기적으로는 10월 발표 예정인 각종 실물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우리 정부가 내놓은 장기투자펀드 소득공제 혜택 등 긴급 금융시장 안정책도 일단 증시에는 호재다. 하지만 이 정도로 국내 증시를 뚜렷한 반동기조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전문가가 많다.

◆금융 안정 대책 효과 얼마나

정부가 발표한 거시경제 종합대책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외환 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과 유동성 확대, 펀드 세제 혜택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은 한국 증시의 역차별 해소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예상보다 미진하다는 염려도 나왔다. 실물경제에 영향이 큰 건설사 대책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증권거래세 인하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환금단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발표로 당장 살아나진 않겠지만 변동성 높은 현 장세에 지지선을 구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증시 대비 역차별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면이다. 황 연구원은 이어 “각국 주요 정부의 지급보증이 발표되면서 리보(런던 은행 간 금리)는 지난 17일 4.4%로 감소했지만 한국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아 역차별이 나타났다”면서 “이번 대책은 이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3분기 성장률 20일 발표

국내 증시 대책과 함께 글로벌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투자심리가 워낙 얼어붙어 실물경제와 관련된 돌발 악재가 터질 경우 지수가 추가로 출렁거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수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경제지표는 무엇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번주 발표되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미국 주택경기지표를 꼽았다. 또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금리 인하 정책도 30일로 예정된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전후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우선 중국 3분기 GDP 성장률이 20일 발표된다.

대우증권이 전망한 예상 수치는 9.1~9.7%다. 지난 2분기까지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GDP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악재로 평가되지만 지수가 흔들릴 만큼의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정향빈 대우증권 연구원은 “경기 하락 염려가 높은 만큼 중국발전개 혁위원회에서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를 부양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경기 둔화 충격을 상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등 주요기업 실적발표 주목

거시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미국 주요 기업 3분기 실적 발표도 이번주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도 시장 관심이 쏠려 있다. 20일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반도체업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샌디스크 실적이 발표되며 21일에는 애플컴퓨터와 야후가 22일에는 맥도널드, 와코비아가 실적을 공개한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인 MS와 물류업체 UPS는 23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 경제를 보여주는 대형 IT주나 금융주, 내수주 실적이 공개되는 만큼 예상 밖의 어닝쇼크가 이어질 경우 증시 타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30일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홍 신영증권 연구원은 “전 분기 기저 효과로 GDP 수치가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술적이지만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코스피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선 세계 경제가 안정을 되찾는 게 급선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의 저점은 내년 2분기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증시 회복은 이르면 1분기 말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증시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재화 기자

“뉴욕증시 지금이 바닥?” 큰손 저가매수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 금융시장에 바닥 다지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분석했다. 큰손들은 다시 투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 경제가 내년 2·4분기에는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경기선행지수와 기존주택 판매, 주간 실업률 등 굵직한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고 애플·아멕스·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주요 기업의 실적이 발표되는 이번 주 뉴욕증시는 최근 경기지표 악화 발표 속에서도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한주 4.8% 올라... 리보 1.5%P 급락

“내년 2분기 회복” 기대 속 불안감은 여전

실제로 9월 미 신축주택 착공 규모가 6.3% 감소하며 지난 91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고용은 9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가 본격적인 침체로 접어드는 것과 대조적으로 실물경제에 선행하는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기회’라는 인식이 서서히 자리 잡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17일자 뉴욕타임스(NYT)지 기고문에서 “지금 저가매수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버핏을 위시한 상당수 월스트리트의 ‘큰손’들은 이제 저가매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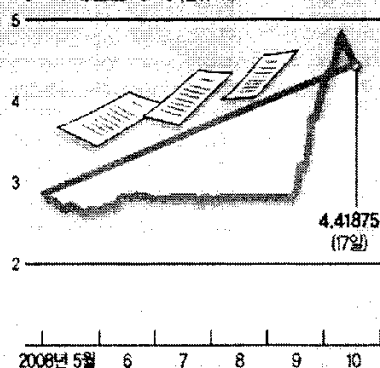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지난 주말 막판 매도세로 하락 마감했지만 1주일 전제로는 4.8% 올라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9월 중순 리먼브러더스 부도 이후 첫 상승 마감했다.

주간 상승폭으로도 지난 2003년 3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얼어붙었던 단기자금시장도 해빙 분위기가 감지된다. WSJ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7일 오전 JP모건체이스가 해외 은행에 100억~150억달러를 3~4.5% 금리로 빌려줬다고 전했다. 대출기간은 하루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기이다. JP모건이 단기대출에 나선 뒤 곧바로 씨티그룹을 포함한 미 대형 은행들도 유럽 금융기관에 단기대출을 시작했다.

WSJ는 유럽 각국이 자국 은행의 은행 간 대출을 지급보증해 위험이 줄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데다 미 정부의 직접 자금지원으로 숨통이 트인 덕에 대출을 재개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중금리 지표금리인 런던은행간금리(리

리보 3개월물 추이 (단위: %)



자료: 톨슨로이터·WSJ

보) 3개월물은 4.418%로 마감해 1주일 사이 1.5%포인트 급락했다.

이 때문에 선물시장 움직임이 여전히 공포 얼어붙어 있고 변동성을 나타내는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변동성(VIX) 지수가 4% 오르는 등 향후 수주일간 더 높은 변동성을 시장이 점치고는 있지만 희망 섞인 관측은 여전하다.

크레디트스위스(CS) 뉴욕의 채권시장 전략가 칼 란츠는 “해빙이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리보 금리는 이번 주 상당 수준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실물경제도 조만간 침체를 벗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내비치고 있다.

도이체뱅크 이코노미스트 조 라보르나는

현 침체가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일부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의 우려에 대해 “과장됐다”고 지적하고 내년 2·4분기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한편 주가 바닥과 경기회복을 점치고 월스트리트의 큰손들이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개미’들은 주식시장을 빠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트립럽스 안베스트먼트 리서치 조사를 인용해 지난 15일 현재 주식 뮤추얼펀드에서 빠져 나간 개인 자금은 550억달러로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40% 폭락한 와중에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는 것이다.

지금 바닥이라며 저가 매수에 나서는 큰손들과는 대조적인 움직임이다. 개미들은 큰손들과 달리 시장에 물어뜯 여유가 없는 것 또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지난 30년대 대공황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저가매수 기회에서도 개미들은 사실상 배제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오하이오 웨슬리안대 재무학 교수인 바버라 맥리오프는 “대공황으로 한 세대 전체가 두려움으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 그 후 수십년간의 경제성장 과실에서 배제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개미들은 잠재적인 투자기회 불균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ymprae@innnews.com | 송경재기자

“실물경제 충격 막아라” 총력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자 각국 정부가 위기 타파를 위한 후속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경기부양을 위한 세금 환급 및 중소기업지원 등이며, 이번 위기의 진앙인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감독도 강화하는 추세다. 심지어 독일 공공노조는 이번 금융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위해 잠정적으로 파업을 보류하기로 했다.

獨-150억 유로 세금 환급·공공서비스 노조 파업 보류
英-2010~11년 예산 공공건설사업 지원에 조기 투입
러-中企대출 11억弗로 확대 佛-자국내 은행 특별감사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독일 정부가 150억유로(2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이 현지언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다음주 150억 유로의 세수를 삭감하는 내용의 추가적인 특별투자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주 나온 5,000억 유로 규모의 금융안정책에 이은 후속 조치로,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영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 건설사업을 조기로 집행하는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앨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2010~2011년도 예산에서 수백억 파운드를 전용, 향후 수개월 동안 공공 건설 사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 투

입할 계획이다.

신문은 이번 부양책이 불황에 따른 타격이 큰 건설업 부문과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병행 및 학교·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 분야에 집행된다고 밝혔다.

홍콩 은행들은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미니본드’를 재매수하기로 했다. 홍콩에서는 약 4만3,700명의 투자자들이 127억 홍콩달러 상당의 ‘미니본드’ 채권을 매입했으며, 지난달 21일 아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돼 왔다.

러시아 정부는 금융위기로 인해 타격을 입은 농업·군수·에너지·건설·자동차 분야의 업체들에 자금을 대출해 줄 계획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의 예산을 3억4,100만 달러에서 11

억 달러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의 진원지인 금융기관에 대한 재발방지책도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7일 긴급 회의를 열어 자국내 모든 은행을 상대로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SA)의 로드 어데어 터너 의장도 이날 “이제 가벼운 규제 시대는 갔다”며 “대형 은행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가 최고 전문가들을 새로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도 지난 10일 차기 행정부와 의회가 추진할 금융산업 규제 방안을 마련했으며, 의회 지도부는 월가(街) 중역들의 보수 제한, 신용파생상품 감시감독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는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들의 경영관행과 과도한

성과급에 대한 감독 등을 골자로 한 5개항의 금융기관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전체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대차대조표 및 부외거래를 완전히 공개하는 조건으로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기간 과도한 성과급을 받으려는 금융기관 CEO들의 연봉에 대해서도 보다 높은 규제방안을 마련한다.

호주 현지 기업들은 이 같은 정부 규제가 과도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케빈 러드 총리는 이 같은 방안을 다음달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상정할 방침이다. 호주에서는 4대 웨스트팩은행이 45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내놓고 빅토리아대 등 2개 대학이 직원 450명 감축을 선언하는 등 금융·실물경제의 위기 가능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밖에 헝가리 정부는 내년 정부 지출 규모를 4억 달러 가량 삭감, 지출 비중을 GDP의 3.2%에서 2.9%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세계은행의 지원 하에 40억 달러의 국제금융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독일의 공공서비스노조는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해 다음달로 예정된 파업을 당분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금융위기가 은행과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줄 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 같은 의사를 전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금융위기 공동 대응 연쇄 정상회담 열린다

美·佛·EU 성명 발표... 내달 美대선 이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세계 주요국가의 연쇄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회동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미 대선 이후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각

국 지도자들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미 대선이 끝나는 오는 11월4일 직후부터 각국 정상 회담이 연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명서는 "첫번째 정상회담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개혁의 원칙에 대해 합의를 모색하는 한편 미래의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라며 "두번째 이후의 회담은 첫번째 회담에서 마련된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정상회담은 우선 미국과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8개국(G8)에 중국과 인도 등이 포함된 10개국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르코지 대통령과 바로수 집행위원장은 부시 대통령에게 ▲금융시장의 강력한 규제 및 관리감독 ▲글로벌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개편 ▲헤지펀드 및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새로운 규범 마련 ▲금융기관 임원보수 제한 ▲조세 피난처(tax haven)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첫번째 임무는 각자 자국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며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자유시장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근기자 mckids@sed.co.kr

IMF "위기국가에 달러 무제한 지원"

신흥국 외환보유액 감소세로

외환보유액 세계 상위 10개국 중 중국과 홍콩을 제외한 8개국에서 외환보유액이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지신문이 19일 보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흥국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하자 자국 통화 가치 방어에 각국이 시장개입에 외환보유액을 써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환보유액이 부족해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신흥국에 대해 달러자금을 무제한 융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을 들어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나라는 러시아다. 10월10일 기준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은 5306억달러로, 정점이었던 8월8일에 비해 약 670억달러(11.2%) 감소했다. 그루지야 분쟁 이후 러시아 증시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대거 이탈한 데다 금융위기 확산으로 자금 이탈 속도가 더욱 빨라진 탓이다. 러시아 당국은 루블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루블 매입-달러 매각' 형식으로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한국도 9월 말 외환보유액이 2397억달러로 정점이었던 올 3월에 비해 9% 줄었다. 역시 원화 가치 방어에 대해 대규모 시장개입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인도(8.0%)와 대만(3.5%) 싱가포르(4.9%) 등에서도 외환보유액이 정점 대비 감소

외환보유액 상위 10개국 현황

순위	나라	보유액(억달러)
1	중국	19,056
2	일본	9958
3	러시아	5306
4	인도	2894
5	대만	2811
6	한국	2397
7	브라질	2039
8	싱가포르	1688
9	홍콩	1606
10	독일	1429

*보유액은 러시아 10월10일, 인도 9월12일, 브라질 10월18일, 나머지는 9월 말 기준.
자료:니혼게이지신문

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다소 줄었다고는 해도 아시아 각국의 현재 외환보유액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와 비교하면 많은 수준이다.

한편 외환보유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중소국들이 IMF에 잇따라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파키스탄도 IMF에 100억달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CNBC가 이날 전했다.

이에 따라 IMF는 자금난에 빠진 신흥국에 자금을 지원할 때 융자액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심사기준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MF는 통상 회원국에 대해 출자범위 내에서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IMF가 현재 신흥국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약 21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자본주의는 여전히 최선의 경제체제”

금융위기는 운용의 실패일뿐...결점 있지만 규제완화 계속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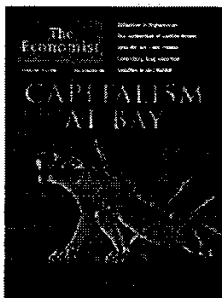
쫓이코노미스트 최신희

“그래도 자본주의는 최선의 경제체제다.”

금융위기가 세계를 강타하며 각국 정부의 시장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자본주의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Capitalism at bay·10월16일자)’ 기사에서 주장했다.

개인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자유방임주의는 30여년 전 영국 대처 정부와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가 도입한 이래 세계 각국 정부 경제정책의 주된 흐름이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바뀌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의 탄생지인 영국에서는 산용위기에 처한 은행들이 부분 국유화되고 있고, 미국 정부도 2500억달러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은행 주식매수에 투입했다. 유럽연합(EU)은 금융감독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뿐만 아니다. 정부의 개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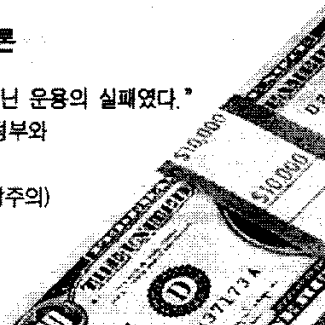
이코노미스트지의 자본주의 옹호론

“이번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자체가 아닌 운용의 실패였다.”

“규제 완화는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정부와 금융의 실패를 막아야 한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빠져선 안 된다.”

“자본주의는 스스로를 수정하며 같은 실수를 좀체 반복하지 않는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자기조절 능력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제 ‘레세이페어(laissez-faire, 자유방임)’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자본주의는 과거에도 위기를 겪은 적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을 계기로 자본주의를 좀 더 잘 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주의에도 단점은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인간이 고안한 최선의 경제체제이며, 지금의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의 실패라는 것이다.

이 잡지는 정부의 규제금융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규제금융이 정치적 관점에서 집행되서는 안되며, 해당 은행의 임원이나 주주들을 보상하는 데 집중돼서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또 이번 규제금융은 이념적 문제가 아닌 실용적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각국 정부가 은행주를 사들이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원활한 자금흐름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잡지는 그러나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 금융의 실패는 규제 완화

의 탓이 아니라 정책의 실패와 금융계의 무리수가 결합된 초강력 태풍이었다는 주장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주택시장의 거품을 무시하고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낮게 유지했으며, 낮은 통화기치를 고집한 중국의 결정으로 자금의 물결이 미국에 집중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자본주의는 결국 스스로를 수정하며 위기를 겪고 나면 투자자들이나 규제당국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규제금융이 잘 처리되면 납세자들은 결국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정부는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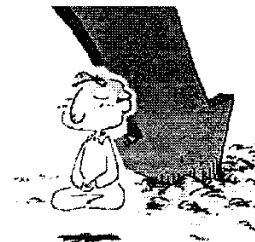
연영력 기자 jran@hankyung.com

월紙가 원하는 증시 패닉 대처법

“TV 끄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라”

미국 다우지수가 하루에도 수백포인트씩 등락을 거듭하는 등 글로벌 증시가 극심한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다른 사람이 받는 충격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투자자들은 공포를 느낄 수 있다”며 이 같은 증시 패닉에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WSJ는 먼저 ‘인간관계를 바꿔 차분한 사람들과 교류하라’고 충고했다. 얼굴이 어둡고 긴장으로 가득찬 사람들과 투자 손실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주식시장에 강박관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를 넓히며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TV를 꺼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의 금융시장은 TV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공포가 더욱 확산되고 있어 될 수 있으면 TV를 멀리하는 게 좋다는 얘기다.



셋째는 긍정적으로 사고하라는 것.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도 험악이 올라간다고 느껴질 때는 가족 사진을 보거나 친구와 게임을 즐긴다며, 심리적 안정을 위해 긍정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단순하고 단순하게 만들도록 노력하라고 권했다.

공포를 피하기 위해 ‘www.stickk.com’ 같은 자기계발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자신의 미래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약속하며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안정력 기자 jran@hankyung.com

'D'의 공포 다가온다 (Deflation)

EOG "디플레이션 위험 10~15%로 급증"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장기 불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D'의 공포가 짙어지고 있다.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경기침체 징후가 완연해지며 잇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3.7%에서 3.0%로 낮췄다. 특히 미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올해 1.6%에서 내년 0.1%로 급격히 둔화되며 사실상 '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경기침체와 함께 국제 상품가격 등 자산가치도 함께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CNN머니의 1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실물경제학자들은 최근 주가 및 유가하락을 디플레이션

의 신호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데이비드 와이스 연구원은 "디플레이션은 경기침체보다 더 무섭다"고 강조했다.

물론 현재 세계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코노믹아웃룩그룹(EOG)의 버나드 보를 이사는 디플레이션 위험이 한 달 전 5%에서 10~15%가량으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으며 노던트러스트의 폴 카스리엘 이코노미스트도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10~30%로 내다봤다. 특히 카리스엘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마저 심각성을 깨닫고 대출과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 수천억달러를 쏟아붓고 있다"고 강조했다.

nanvemi@innnews.com | 오미영기자

매일경제

2008년 10월 20일 월요일
A37면

버핏, 美서 가장 관대한 억만장자

'투자 귀재' 워런 버핏이 미국 억만장자 가운데 가장 관대한 부자로 뽑혔다고 미국 잡지 포트폴리오(11월호)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잡지는 미국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보유 재산 대비 자선활동비를 분석한 '관대 지수(Generosity Index)'를 따져 순위를 정했다.

520억달러 규모 재산을 보유해 미국에서 두 번째 부자인 버핏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461억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관대한 부자로 선정됐다.

미국 최대 부자 빌 게이츠는 같은 기간 37억달러를 기부해 버핏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3위에 랭크된 억만장자 투자자 엘



리 브로드는 보유 재산이 70억 달러로 재산 순위가 46위에 그쳤으나 11억5000만달러를 자선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 4위는 조지 소로스(재산 90억달러 33위, 기부액 11억달러), 5위는 존 클러지 메트로미디어 회장(재산 95억달러 31위, 기부액 7600만달러)이었다. 또 눈길을 끄는 억만장자로 6위를 차지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재산 115억달러 25위, 기부액 7억1500만달러)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오재현 기자

신경무 朝鮮漫評 kenshin@chosun.com



김상택 만평



한겨레
그림핀



장봉군
jang@
hani.co.kr

서울만평

백무현 bmh@seoul.co.kr



“외채 1000억달러 지급 보증”

정부, 은행 해외자금 조달 적극지원
건설업체 지원대책도 모레 발표키로

盧정부 작년초, 대선후 문제될 사안 취합 작년3월 靑서 직불금감사 직접지시 파문

문제 사안 8, 9건 리스트 작성... 퇴임후 대비책인 듯
이호철 국정상황실장 6월15일 靑서 감사원 보고받아
감사원 7월26일 비공개 결정뒤 수령자 리스트 폐기

석탄서 석유 뽑는 남아공 기술이 에너지 강국이다

본지·한국외대 공동기획

“한국, 원천기술 소홀 땀
막대한 로열티 지불할 것”

우주로 가자... 꿈 무르익는 코리아

KSLV 1호 내년 발사

中경제 엔진 ‘주장 강 삼각주’ 세계 금융위기 쓰나미

3개월내 250만명 실직 공포

공장 잇단 폐업... 홍콩계 기업 25% 도산 위기